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根深之木風亦不抗有灼其華者此
 略切華威貌華俗作花
 實海雲切實之盛也
 也
 意
 根深之木風亦不抗有灼其華者此
 略切華威貌華俗作花
 實海雲切實之盛也
 也
 意

The Pride of Korea!
The Pride of
Unicorn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유니콘

Made in Korea의 자부심을

세계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Best Quality . Best Price . Best Service

Unicorn 
PT.  UNICON INDO MESIN

유니콘미싱공업(주)

Office : Jl. Pulo Asem Utara Raya No.27 Rawamangun Jaktim 13220
Telp. (021) 4786-2424, 4755528 / 9 Fax. (021) 4755531
E-mail : unicon_indo@yahoo.com





넓다운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계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PRIME NUSTANSARA TOUR SERVICE

SUKA KOREA
Super Unforgettable Kind Amazing

프라임 투어의 한국패키지 브랜드 명칭
'좋아하다'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 SUKA를
멋지고 잊을 수 없고 진절하며 굉장한 한국이라고 풀이함.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가 프라임 투어로 거듭 납니다.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가 <프라임 투어>로 상호를 변경 하고
더욱 적극적인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장 고급스럽고 세심하게 전파합니다.

- ▶ 문화유산 패키지: 유형 및 무형 문화재 중심 패키지
- ▶ 한류 패키지: 열정적인 공연물 중심 패키지
- ▶ 의료 패키지: 발달된 의료상품 중심 패키지
- ▶ 쇼핑 패키지: 면세점부터 시장까지 쇼핑 중심 패키지
- ▶ 기업 패키지: 기업의 요청에 따른 인센티브 및 행사 중심 패키지



프라임 투어 서비스

- ▶ 인도네시아 여행 서비스
- ▶ 주요 지역 호텔 및 차량 예약
- ▶ 기업 및 단체 컨퍼런스 개최
- ▶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 ▶ 교민을 위한 가족초청 프로그램
(자카르타 친지방문과 유명여행지를 결합한 여행)
- ▶ Garuda항공 에어텔 예약
~ 자카르타 출장고객
~ 인도네시아 여행객,
~ 인도네시아경유 호주여행 고객

문의 및 예약

Unit 335
Darmawangsa Square Citywalk
Jl. Darmawangsa VI & XI
Kebayoran Baru, Jakarta
Indonesia #12160
Tel : (62-21) 7278-0856
Fax : (62-21) 7278-8375
E-mail:
michelle.lee@primef.co.id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창립 20주년!

품질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동중 인도네시아는

- 1 20년간 축적된 기술로 포장용 비닐 (Poly Bag) 및 프린트에 관한 완벽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3 Best Quality & Quick Delivery를 최우선으로 귀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 598-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1. 10. 14부터 '13. 1. 18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의원선거일 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 후 30일까지	법§218①⑨ 규§136의2
'11. 11. 12까지	토	재외투표용지 작성·교부 방법 결정	국외부재자신고 등 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218의18③ 규§136의17①
'11. 11. 13부터 '12. 2. 11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 규§136의6
'12. 2. 22부터 '12. 3. 2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3. 3부터 3. 7까지	토 수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 신청(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11
3. 8부터 3. 11까지	목 일	재외선거인명부 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 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3. 12.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 전 30일	법§218의13①
3. 22까지	목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 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3. 22부터 3. 23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법§218의14④ 규§136의13
3. 23부터 3. 27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인 명부 포함)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37,38
3. 25까지	일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3. 26까지	월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③ 규§136의17③
3. 28부터 4. 2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이내	법§218의17① 규§136의15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4. 5부터 4. 6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법§148 법§218의16③
4. 11.	수	투 표 개 표 (투표종료 후 즉시)	선 거 일	법§155 법§176 규§95의2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법§218의24 규§136의25

재외선거의 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작성 : 교부 = 10월 14일부터 15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결정 =

내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서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 교부하여 국내선거와 동일하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서는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재외선거인 등에게 교부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8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내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국제우편으로 재외선거인에게 송부하는 대신 ‘중앙선거위의 의결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 교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위가 재외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제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배달지연이나 미배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기표식 방법으로 투표하여 교포 2, 3세 등 한글에 익숙하지 아니한 재외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다.

투표용지 작성, 교부 기계장치는 공직선거에 최초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번 중앙선거위의 결정에 앞서 재외공관 현지에서 시험운영을 거치는 등 사전에 그 정확성과 안정성 등 성능을 치밀하게 검증하였다.

한편, 중앙선거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 15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대륙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면 아주지역에 45곳, 미주지역에 37곳, 구주지역에 45곳, 중동지역에 16곳, 아프리카에 15곳이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위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중앙선거위는 내년에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법개정 노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으며, 특히 2차례의 모의재외선거를 통해 드러난 투표지 회송지연 등의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재외선거의 절차사무에 관하여는 이미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재외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기계장치 이용 투표관리절차(개요)

본인 확인	투표용지 작성 · 교부	회송용 봉투교부	투 표
신분증 제시 본인확인 전자무인	투표용지 출력 책임위원 사인날인 일련번호 절취 및 교부	주소 등 라벨 출력 회송용봉투 첨부후 교부(투표용지와 함께)	기표식 투표 회송용봉투 봉함 투표함 투입



선홍빛 가을이야기 꽃무릇(수선화과)

학명 : Lycoris radiata

꽃말 : 참사랑



상사화 相思花

바라볼수록 밝게 빛나는
선홍빛 가을이야기

일 지고 나면, 그제야
애달픈 긴 눈매로 일렁이는 널

황혼, 피안, 꽃멀미...
사람들은 말하지만

정작 아무도 알지 못하네
가을빛 선홍이야기

인도 사람들은 이 꽃을 천상계의 꽃, 만수사화(曼殊沙華)라 부른다. 마지막 잎까지 말라 없어진 꽃대에서 붉고 화려한 꽃을 피운다 하여 피안화(彼岸花)라고도 했다. 산기슭이나 습한 땅에서 무리지어 자라며, 질 근처에서 흔히 심는다.



한인뉴스후원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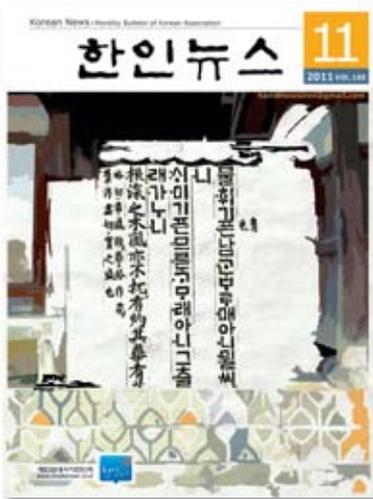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교민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승 은 호 배상



표지설명 ▶▶▶

한글과 꽃담이 어우러져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우리 한국인의 정신이라면 꽃담은 미감이라 할 수 있겠지요...

표지디자인 : Diki Satria Nugraha

2012 재외선거 안내.....7

산과 들에 피는 꽃/한국의 야생화.....9

차 한 잔 마시며 <김문환>/국가의 위상.....12

특집>
한국 전통의 미 ‘꽃담’ <이종근>.....14

인터뷰/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김재한관장.....18

자카르타스케치 <엄종한>/꽃보다아름답고.....21

연재기고<신성철>
 /인도네시아 한류, 틈새에서 주류로.....22

KOFA 회원들 BISS 2011 행사 참석.....25

탐방> 한국문화원 한국어반.....26

특별기고>
인도네시아와 한류 -2 <신영덕> 51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이달엔 어느 달보다 좋은 소식이 많이 담겼습니다. 축하할 일이 많은데 지면이 좁아 더 큰 마음을 전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재인니대한체육회가 체전에 첫 출전하여 거둔 성과에 찬사를 보냅니다. 인니한인사회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양국 문화교류의 선봉장을 양성할 (사)한*인니문화연구원과 비누스대학교가 맺은 ‘한국어산학인력양성과정’도 축하할 일입니다. 인터넷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께도 축하드립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매 소식마다 정성껏 편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종근 새전북일보 부장의 ‘꽃담’과 신영덕 UI 교수의 ‘한류’가 2회차 연재되었으며, 이달부터 박진원 원장(아름다운병원)의 건강칼럼이 연재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5.1070.3065 박 정 자

이모저모, 한인사회28

-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재인니대한체육회
- 한-인도네시아 사회적책임(CSR) 포럼 개최
- 엑스포 2012, 여수코리아로 오세요
- KOICA 제3차 워크숍 개최
- 옥천 해외수출개척단 인니 방문
-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한인사회 각계대표와 간담회
- 여수박람회본부-국내외자원봉사자단체 MOU
- 하나은행 2012년도 경제전망 세미나
- 동중인도네시아 창립 20주년 기념식
-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관광특판행사
- 인도네시아 KTV 2011 서울프라이즈 우수상 수상
- 반동한인회 신임회장 선출
- 대구시각장애인예술단 자카르타 공연
- KOWIN 총회> 담당관 이-취임식, 임원진 개편
- 한인니문화연구원-비누스대 '한국어산학인력양성과정'
- 피아니스트 윤송원 독주회
- JIKS> 학부모샤프론봉사단 2급 연수 마쳐
- 대사관 알림> 재외선관위 설치, 운영
- JIS> 정성호, 한국학생 최초로 지스 홍보대사 역할
- 발리한인회, 사이트 개설
- 한인니문화연구원 제2회 인터넷공모전 시상식

제2회 인터넷공모전 대상작
꿈은 살아있다 <이동균 > / 수상자명단..... 45

제92회 전국체전참관기> 대한체육회
모두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종현>..... 48

전시회 안내> 제7회 자필묵연전.....53

NILAI KEBAIKAN DALAM IBADAH HAJI
하지예배의 가치 <Yuni Sugandini>54

건강하게 삼시다 <박진원>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56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김성월>
/ 까스뿌한 족 58

길 위에서 <박관구>
/ 엘콘도 파사60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이승민>
/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한 회사정리..... 62

KOCHAM> 상공회의소에서 알립니다..... 66

동포안내문67

와칭! 코리아..... 68

한인회 임원 찬조금.....70

함께해요71

생활정보..... 72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승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엄종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상

김 문 환/논설위원

‘구월이 오면(Come September) 그녀는 님을 기다리며 작고 소박했던 마음을 황금물결로 일렁이는 들녘 한가운데 바람으로 풀어 놓았듯이’, 매년 자카르타에도 9월이 찾아오면 필자는 ‘한국문화주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그 설레임을 감추지 못한다. 3년째 연례행사로 찾아오는 그들이지만 매년 다른 자태를 품고 등장하는 신선함은 우기와 건기로만 반복되어 단조롭기 그지없는 이곳 교민들의 일상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주며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현지인들에게는 축제의 한 마당을 제공해 준다.

우리는 잠시 생업 속의 시간을 쪼개어 행사의 개막 광파레가 울리는 ‘대사배 태권도대회’ 식전행사인 태권도시범을 관람하였다. 두 사람 키를 훨씬 넘는 높이에 장검의 끝에 꽂혀있는 빨간 과일을 향해 정확하게 발차기로 가격하여 박살내는 고난도 기술은 관람객 모두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사과를 자신의 아들 머리 위에 얹어놓고 화살로 관통시키는 윌리엄 텔(William Tell)의 전설이 잠깐 머리를 스치기는 하였지만 바로 코 앞에서 전개되는 실제상황의 전율 앞에 곧 소멸되었다. 세계태권도연맹 소속의 이들 시범단은 이들 후에 열린 개천절 및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똑같은 묘기를 선보였다. 이 자리에는 두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다수의 전, 현직 인도네시아 각료들과 외교사절단이 참석하여 ‘다이내믹 코리아’의 역동성을 세계만방(?)에 그대로 보여준 행사였다. 뒤이어 무대에 등장한 여성 6인조 드럼셋의 공연 또한 여성의 힘을 아름다움 속으로 정제시켜, 때마침 금년도 노벨평화상을 아프리카와 중동국 여성지도자 3명이 공동 수상한 경사와 보조를 맞추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여성의 화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날 파티장을 찾은 7명의 현직각료 중 3명이 여성장관들이었으니, ‘여성의 날’ 행사로 착각할 정도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35명의 각료 중 여성 장관은 총 4명이니, 보건부장관만 빼고 전원이 이날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뜻이다. 이날 행사의 백미라면,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단상에 오른 핫타(Hatta Rajasa) 경제조정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었다. 그는 단상에 오르자마자 자신도 학창시절에 태권도에 입문한 인연을 꺼내며 한국예찬론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완공한 자고라위 고속도로의 완벽성을 칭송하며 그 역사(役事)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였으며, 삼성전자, LG전자의 성공사례와 최근 투자를 시험한 포스코, 한국타이어, 롯데그룹의 상호를 정확히 거명할 정도로 양국 경제교류의 현 주소를 그대로 적시하였다. ‘국가 위상’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과 같은 금자탑은 하루 아침에 쌓아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 자고 일어난다면 터지는 한국진출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해 이곳 식자들로부터 3등 국민이라고 지탄을 받던 시절이 바로 20년 전 일이나, 우리는 어느새 이러한 오명을 다 씻어내고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라는 양적 팽창과 더불어 기업투자의 급신장이라는 질적인 향상도 도모하였다. 일본정부는 재빨리 자국 특별기를 띄우고, 미국은 발리섬에 함대를 들이대며 대탈출(Exodus)을 시도하던 1998년 5월 사태 당시, 자경단



을 구성해 우리의 회사와 가족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뭉쳐진 당시 한국인의 용맹성은 이곳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 사회에 강한 인상을 심은 바 있다. 2006년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며 정부는 경제교류와 동반하여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영사관계를 수립한 1966년도에 3명 규모의 공관이었던 우리에게 비해, 공관원 50명의 집단체로서 거만한 외교 파워를 과시하던 북한은 몇몇 앓되는 우리 교민들을 회유하기도 하였으며 한국공관으로 가자고 택시를 타면

북한대사관으로 안내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언론계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치적이 북한의 몫으로 변질되어 오도되어 나오는 언론기사를 보고 분통을 터뜨리던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지인들을 대할 때마다 답답함에 가슴을 치기도 하였다. 한국대사관이 매년 주최하는 국경일 행사에 인도네시아 주무장관인 외무부장관의 모습은 본 적이 없으며, 경량급 장관 한 두 명만 참석해도 감지덕지하였다. 이날 참석한 8명의 현직각료 외에도 전직 정, 부통령인 메가와띠와 유습깔라까지 참석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 라는 단어 그대로가 아니겠는가. 소녀시절 자카르타를 찾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김일성화’ 를 헌정하는 역사적 현장의 증인으로서, 남북문제에 관한 한 해결사임을 자임하며 바로 얼마 전인 9월 중순에 평양을 다녀온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듯한 메가와띠의 자태는 지존적인 풍모를 풍겼으며, 전직 부통령인 유습 깔라도 다변가답게 행사장 맨 앞자리에 서서 4~5명의 현직 장관들과 담소를 나누기에 바빴다. 축하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 무대로 나온 장관들의 면면은 그 어느 강대국 국가의 파티 행사에서도 볼 수 없는 드문 장면이었다. 금년 11월이면 유도요노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맺는 핫따 경제조정장관을 비롯하여 뿌르노모 국방부장관, 히다얏 산업부장관, 마리 빵에수뚜 무역부장관, 하산 산림부장관 외에 뒷전에서 관망하고 있는 아구스 국군사령관(PANGAB), 공군참모총장, 알리샤바나 국가기획원장관, 린다 여성부장관과 그녀의 남편인 아굽 구멜라르 전교통부장관의 두터운 그림자는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에 무슨 일이 전개되는지를 대략 짐작케하고 있다. 이날로부터 불과 11일 후에 열린 중국의 건국일인 쌍십절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정부 각료는 아궁 락소노 사회복지 조정장관, 엔당 보건부장관, 그리고 중국계인 마리 무역부장관에 불과한 사실과 비교하면 격상된 한국의 위상에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전례없이 많은 각료들이 우리의 국가적 행사에 참석하였음은 양국 외교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며, 우리가 늘 아쉬워했던 베니 무르다니 장군 같은 진정한 지한파 인사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갖게 한다. ■

단청의 화려함은 세월에 씻겨 사라져갔지만 남아 있는 굴뚝은 한편 담백하고 한편 청아하며 한편 깔끔해 순박한 한국의 멋, 한국의 아름다움을 제멋대로 뽑내고 있다.

꽃무늬를 놓아야만 반드시 꽃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식물도 좋고, 글자도 좋고, 동물도 좋다. 꽃담은 단순히 담을 치장하기 위해 무늬를 놓은 것이 아니다. 무심히 지나치는 작은 문양 하나에도 조상들의 염원이 쉽다. 전돌 자체에 무늬를 새겨 길상과 벽사의 뜻을 나타낸 예가 있는가 하면 여러 전돌 모양과 색을 조합해 담장이나 벽면을 꾸민 것도 있다. 길상무늬에는 십장생이 있고, 국화에 나비가 앉은 것, 쌍학이 천도를 맞잡아 문 것, 바위 위에 석류나무가 솟아 가지마다에 탐스런 석류가 영근 것, 고목 등걸에 매화가지가 뻗어 거기 꽃이 피고 망울졌는데 이때 한 마리의 새가 날아든 것도 있다. 또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이 피어난 곳에 범나비 한 쌍이 머물고, 가지와 잎이 검고 꽃은 붉은 진달래가 봄 아닌, 사시를 두고 피어나 있기도 하다. 용이나 봉황, 박쥐 등 상서로운 동물은 물론 대나무, 매화, 포도와 같은 식물무늬도 볼 수 있다. 동식물 외에도 뇌문(雷紋)이나 만자문(卍字紋), 길상문자문의 보기 등도 아주 많다.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은 조선시대 궁궐의 굴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이다. 해, 바위, 거북 등 십장생은 장수, 포도는 자손의 번성, 박쥐는 부귀, 나비, 불가사리 등은 악귀를 막는 상서로운 짐승들이 등장한다. 꽃담에 앉아 달을 맞는 새 한 마리! 열키셀기 우리네 황토를 구워 만든 담벼락에 흙을 구워 꽃을 피우고 휘영청 보름달을 띄웠다. 경복궁 자경전 꽃담에 새벽돋을 구워 그린 매화. 가지 끝 둥근 달엔 한 마리의 새가 동지를 들고 앉아 웃는다. 시나브로 가지에 매화가 송이송이 피었다. 매화뿐 아니라 난초 국화 대나무 나비 연꽃 온갖 화초와 새들을 줄줄이 그려 놓았다. 비로소 구중궁궐이란 말이 다 실감난다.

경복궁 아미산의 굴뚝은 십장생, 사군자와 장수, 부귀를 상징하는 무늬, 화마와 악귀를 막는 상서로운 짐승들이 표현되어 있다. 깊은 밤, 꽃살에 붙은 창호지 틈새로 은은한 달빛이라도 새어 들면 세속의 욕망은 소리 없이 흩어지고 금방이라도 해탈의 문이 열릴 듯하다. 무념무상의 경지가 꽃담 문양 하나하나마다 숨어 있을 터이다. 창덕궁 낙선재는 차례로 배치된 건물 사이는 행랑과 담이

둘러쳐진 채 서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한다. 낙선재는 왕이, 석복헌은 왕비가, 수강재는 대비가 거처하던 곳이다. 단청이 없고 단아한 멋이 있는 반면 다양한 외관과 후원의 화계가 훌륭하며 다복과 다산을 상징하는 문양이 많아 은근한 맛이 일품이다. 하지만 한평생 눈물짓고 살았던 궁궐 연인네들의 한이 서려 있으며, 그들만의 은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있고, 향기는 없지만 눈이 아린 ‘무늬가 끝없이 이어지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의 꽃담에 구곡간장이 다 녹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영생의 염원을 도모하는 ‘무시무종’ 무늬로 인해 잡귀가 썩 물러갈 날 날도 멀지 않다. 창덕궁 낙선재 꽃담을 따라 걷는다. 안마당 동쪽 담장에 박힌 석쇠무늬는 정육각형을 뿜내며, 낙선대에서 석복헌으로 통하는 뒤뜰 셋담의 포도 무늬는 다산을 상징한다. 포도 무늬가 있는 담 뒷면을 매화 무늬로 바꿔 꾸미는 기발한 착상은 더욱 백미다. 뽀뽀해봐도 점선 무늬의 핵심은 일월성신(日月星辰) 무늬다. 기와로 무늬를 형성하면서 둥글게 다듬은 화강석으로 해, 달, 별을 표현해 자연을 숭상하는 마음을 드러냈으니 하늘에 그렇듯이 우주에 별이 총총할까. 주로 조선시대 능의 곡담에서 이를 찾을 수 있으며, 낙산사의 원장과 창덕궁 주합루 서쪽 담, 창덕궁의 인정전 뒷담, 해인사 원당암 앞 담장, 화성 동장대 합각의 둥근 무늬, 도동서원 담의 둥근 무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 화성의 동장대는 평소 군사훈련을 지휘했던 곳으로, 무예를 수련한다는 연무대라는 별칭이 붙었다. 뒤뜰의 성벽과 동장대 사이에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군 사들이 담 뒤에서 숨어서 몰래 지켜본 영롱무늬





의 담이 둘러쳐져 있으며, 전남 송광사 침계루 통풍구의 네 장의 꽃 이파리는 붉은 나무 기둥과 푸른 창문과 노란 벽면이 주변의 초록 빛깔과 어우러지면서 수려한 풍광이 그만이지만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과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아는’ 세상 살이를 일러준다.

‘쓸모’ 위에 정갈하게 버무려진 ‘꾸밈’은 한국 전통문양의 독창성이다. 그동안 한국 전통문양은 이처럼 뚜렷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고루함이라는 편견 속에 지난 시대의 유물로 치부됐다. 전통과 현대의 간극 속에 움츠러들었던 꽃담의 전통문양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면 현대 디자인의 새로운 가치로 보편화되는 ‘찬란한 유산’이 될 수 있다. 한국 전통문양의 편안한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화려함이 가장 한국적인 가치에서 가장 세계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되려면 꽃담 문양이 갖는 가치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양한 쓰임새로 이어져야 한다.

▶ 글자 난장의 황홀한 미학

옛 사람들은 그림 감상을 일러 ‘간화(看畫)’, 즉 ‘그림을 본다’는 말보다 ‘독화(讀畫)’, 곧 ‘그림을 읽는다’는 말을 썼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받아본 제자 이상적이 스승께 올리는 편지에서 “‘세한도’ 한 폭을 엮드려 ‘읽음’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썼다. 그렇다면 그림을 ‘읽는’ 것과 ‘보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선 ‘본다’는 것은 곁에 드러난 조형미를 감상한다는 뜻이고, ‘읽는다’는 말은 동양의 오랜 서화일률(書畫一律), 글씨와 그림이 한가락이므로 보는 방법도 한가지로

‘읽는 것’이 된다. 그림에서 읽히는 내용 또한 형상보다는 그린 이의 마음이 주가 되고, 문인화에서는 이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서화동원(書畫同源)’ 즉, 글씨와 그림의 근원이 같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한자는 상형문자로, 글씨 자체가 하나의 그림인 셈이다. 한국의 전통 꽃담에서는 이같은 생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벽을 화려한 난장(亂場)으로 도배를 한다.

선조들은 길상문자인 수복(壽福), 강녕(康寧), 부귀(富貴), 다남(多男), 만수(萬壽), 쌍희(囍) 등을 벽돌로 무늬를 놓아 꽃담을 만들었다. 꽃담은 5천년의 한국 그림과 문양 감상하기가 가능하며, 한자 퍼즐맞추기는 더욱 흥미를 더한다. 문자문은 글자를 무늬로 넣거나 특정한 글자를 연속해서 배열, 문자들을 새김으로써 글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글자 무늬로 들 수 있는 것은 ‘수(壽)’자와 ‘복(福)’자이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장수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었다. 때문에 옛사람들이 표현하는 문양에는 유난히 장수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다. 수(壽), 복(福) 계열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문자문으로 ‘만(卍)’자나 ‘아(亞)’자를 새기기도 했다. ‘만(卍)’자는 사망 끝이 중황으로 늘어나 펼쳐지고 계속 이어지면서 끊어지지 않는 형태를 형성하는데 무한장구를 의미한다.

‘아(亞)’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만(卍)’자처럼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무늬를 형성해서 무한장구와 결실을 뜻한다.

운현궁의 꽃담은 노락당으로 가는 중문 끝자락에서 시작해 이로당까지 이어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남쪽의 ‘길 영(永)’자에서 ‘즐거울 락(樂)’자까지 10자의 한자가 새겨 있어 선조들이 추구한 삶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남쪽에



서부터 ‘永(길영) 世(인간세) 春(봄춘) 壽(장수수) 富(부자부) 康(편안강) 寧(편할영) 萬(일만만) 歲(해세) 樂(즐거울락)’ 등 10자는 ‘영원토록 봄의 세월과 같아 장수와 부귀로움 속에 평안하여 만세토록 즐거우시라’ 는 뜻의 상징이다. 무시무종(無始無終)의 문양을 통해 장수의 염원을 담아냈고, 한자 10자로 된 문장을 통해서도 장수와 부귀 평안 등 백의민족의 소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창덕궁 회정당 굴뚝은 면마다 상단과 하단에는 글자가, 중단에는 무늬전돌이 놓여 있으며, 모두 12개의 꽃담으로 표현된다. 굴뚝 북면의 상단과 하단 꽃담에 배운 ‘강(康)’ 자와 ‘녕(寧)’ 자는 1920년 경복궁에서 왕의 침전인 강녕전을 이 건하면서 그것을 표시한 것까지 함께 옮겨다 놓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코끼리 무늬 전돌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배치된 ‘영(永)’, ‘낙(樂)’, ‘수(壽)’, ‘부(富)’ 자와 같은 다른 글자 무늬 꽃담과 마찬가지로 화려함을 더한다. 논산 돈암서원(충남 논산시 연산면, 사적 제383호)은 조선의 참선비 사계 김장생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으며, 배향 영역 사당은 말 그대로 꽃밭이다. 길상 무늬 대신에 12개의 글자를 사용하되, 붉은 색으로 큼지막하게 배열해 그 중요성을 강조한 듯 하다. 그 글귀는 ‘서일화풍(瑞日和風)’, ‘지부해함(地負海涵)’, ‘박문약례(博文約禮)’ 다. ‘서일화풍’ 은 ‘좋은 날씨 상서로운 구름, 부드러운 바람과 단비’ 라는 뜻을, ‘지부해함(地負海涵)’ 은 땅이 온갖 것을 다 실어주고,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주듯 모든 것을 포용하라는 의미인 만큼 김장생선생의 인품이 확연히 드러나 보인다. ‘박문약례(博文約禮)’ 는 지식은 넓게 가지고 행동은 예의에 맞게 하라는 의미다. 누구의 기찬 발상이었을까. 담을 쌓으면

서 한 칸에 글씨를 박아 놓은 담양 소쇄원의 풍류와 여유는. 계류(溪流) 위의 외나무다리과 죽교, 아름다운 토석담과 담벽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오곡문(五曲門)’, ‘애양단(愛陽壇)’, ‘소쇄처사 양공지려(瀟灑處士 梁公之廬)’ 로 돈암서원과 마찬가지로 선비정신의 상징에 다를 아니다. ‘소쇄처사 양공지려’ 라는 검정 글씨는 ‘회사후소(繪事後素)’ 즉,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깔린 다음에 가능하다’ 는 공자의 말을 현실화한 징표다.

경북 청도 운강고택(중요민속자료 제106호)의 화방벽 중앙엔 ‘길할 질(吉)’ 자가 선명하다. ‘길’ 자와 간단한 꽃무늬를 넣었으며, 그 아래와 위로는 귀갑문과 비슷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배열했다. ‘길(吉)’ 자는 ‘선비(士)의 말(口)은 참되고 좋은데서 길하다’ 는 의미로, 네 개의 ‘길’ 자를 반듯하게 자리하게 했다. 경기도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의 화방벽엔 ‘부(富)’ 자(오른쪽)와 ‘귀(貴)’ 자(왼쪽)를 무늬로 새겨놓는 것은. 화방벽의 글씨와 무늬를 통해 고요한 마음으로 부딪침을 다스리고 유물적인 부귀를 멀리하면서 유심적인 자타일체의 경지를 가르치며 추구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계룡산 중악단(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신원사, 보물 제1293호) 대문간채의 중앙칸 및 중문간채의 중앙칸 판문에는 신장상(神將像)을 그렸고, 이들의 화방벽 및 들레의 담장에는 와편으로 수(壽), 복(福), 강(康), 령(寧), 길(吉), 희(喜) 등의 문자와 무늬 등으로 장식한 만큼 우리말 ‘지화자’ 를 그대로 읊긴 것이리라.



이 중 근 새전북신문 문화교육부장

전국문화의집협회 부회장, 전주시문화의집 관장, 한.프랑스 국제컨퍼런스 대한민국 대표를 역임했으며 한국프레스센터와 한국언론재단, 방일영문화재단, 관훈클럽 기획 출판 대상, 제5회 전국 문화기반시설 평가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한국의 옛집과 꽃담’ 등 10권이 있다.



한-인니 경제 협력의 수문장 코트라자카르타 무역관 김재한 관장

최근 신흥경제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BRICs를 이을 세계경제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과 언론 등이 선정한 향후 주목해야 할 신흥국가 그룹인 MIKT, MAVINS, CIVETS 등에 모두 포함되는 국가 또한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으면서 양국 간의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3천만 명의 세계 4위 인구대국이며 원유, 천연가스, 목재 등 많은 자원을 보유한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최고의 금융회사 골드만삭스는 인도네시아가 2030년에는 세계 10대, 2050년에는 세계 6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강점은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생산가능인구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MIKT>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MAVINS> 말레이시아,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CIVETS>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



간혹 소규모의 파트너십 형태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환경 특성상 문서로 약속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약속된 기간 안에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거나, 계약 이행사항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예기치 않았던 돌발 상황 및 변수의 등장으로 인한 추가 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자본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 3만이 훨씬 넘는(외교통상부 통계 수치 : 2011년, 36,295명)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으며 약 1,500여 개의 한인 기업체가 진출해 있다.

그에 따라 날로 존재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의 김재한 관장에게서 한국과 연관된 인니 시장에 대한 전망과 동향을 들었다.

- 코트라를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코트라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을 위해 1962년에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현재 전 세계 110개의 해외조직망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해외전시사업 및 구매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 사업을 포함하여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투자진흥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임기는요.

2010년 2월 1일에 자카르타 무역관장으로 부임했고 임기는 3년입니다. 벌써 1년8개월이 지났습니다.

- 한국과 연관된 인니 경제와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주십시오.

인도네시아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평균 6%를 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3억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원유, 광물자원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6.5% 성장은 달성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경제의 침체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수출의 GDP 비중이 27.3%에 불과하고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이 미약하기 때문에 금번 글로벌 위기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와 중산층의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한 견고한 내수 성장세로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가 인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크릿가든, 선덕여왕 등 금년에 약 50편의 드라마가 Indosiar 등 5개 방송국에서 방영되었고, K-POP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이 등장할 정도로 한류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의 인기로 인한 패션, 헤어스타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은 한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마트의 눈부신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매출액은 '09년 6천억 원에서 '10년 8천억 원으로 33% 증가했으며, 금년도 말까지 전년 대비 25% 늘어난 총 1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지진출 이후 최근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현지 유통시장 진출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한국산 생필품, 먹을거리, 쇼핑문화 등 일상생활 속의 한국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한류를 비즈니스한류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류는 삼성, LG 등 전자제품을 비롯한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급 이미지와 마니아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인니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1년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1,500여 개 사로 이중 섬유 및 섬유 관련 업체가 350개사, 전기 및 전자 관련 업체 200여 개 사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섬유, 신발 등 인도네시아 내 노동 집약 산업 부분의 생산과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원, 건설, SOC 등 기간산업 분야에 이어 IT 분야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 연초에 코트라 사업의 일환으로 두 곳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인니에 입점했는데, 이렇게 인니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하신 프랜차이즈 사업은 일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으로 인니 진출을 희망하시는 기업들에게 우리 무역관 내 설치된 투자지원센터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지원센터기능은 현지진출기업의 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고,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법인 혹은 공장설립 관련된 1:1 맞춤 서비스, 주요 투자뉴스 업데이트, 경영(세무·노무·법률) 세미나 참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니에 진출하면 성공할 것 같은 유망 사업으로 어떤 분야를 꼽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인도네시아 내수경기 호조 및 건설 경기 호황으로 한국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원자재 가공품, 철강 제품이며,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 발전용 석탄을 비롯한 천연 자원입니다. 이러한 활발한 교역 활동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5대 교역국가로 자리 잡아, 두 나라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까지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한 경제 개발 계획에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한데요. 동 계획에 따르면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인프라, 농업 및 천연가스 분야에서 주요 파트너로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코트라는 투자조사단 파견 및 투자협력 상담회 개최를 통해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인니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무역관이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 경영형태는 대기업 중심의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45.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진출 형태가 전자 관련 제조업, 자원 생산 관련업 등 자본 규모가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소규모의 파트너십 형태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환경 특성상 문서로 약속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약속된 기간 안에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거나, 계약 이행사항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예기치 않았던 돌발 상황 및 변수의 등장으로 인한 추가 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자본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하시는 일과 상관없이 생활인으로써 인니에서의 생활은 만족하십니까.

처음에는 더운 날씨와 티푸스에 고생하였지만, 요즘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열대의 예쁜 꽃과 인도네시아의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아얌 고랭, 나시고랭, 사뎐, 그리고 시원한 비르빈땅(맥주)을 좋아합니다.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워라

하루를 준비하는 아주머니의 미소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향기로운 미소로 일상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일 아침엔 나도
웃으며 시작해보렵니다....



인도네시아 안류, 틈새에서 주류로

K-POP 경연대회

지난달 초 한류스타이자 해병으로 복무 중인 현빈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그가 오기 전부터 인도네시아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들과 현지인들의 반응으로 그의 인기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그의 인도네시아 해병대 방문을 동행 취재하면서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현빈은 입대 전 재벌 3세 김주원 역할로 높은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3~4월 인도네시아 TV를 통해 방송되며 한류스타로 급부상했다. 현빈의 방문에 앞서 열린 한국문화주간행사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류가 화교와 소수의 현지인만 호응할 뿐 대중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1990년대 말만 해도 일본, 인도, 스페인 드라마가 어설픈 인도네시아 드라마와 함께 인도네시아 TV를 장악했다. 음악도 서양 대중음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인도와 일본의 대중음악이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간혹 자카르타 망가두아 같이 화교상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홍콩과 대만에서 제작된 드라마와 중국어 노래를 담은 CD나 VCD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한국드라마는 한국비디오

가게에서 1개월 이상 늦은 회차를 비디오로 빌려서 볼 수 있었다.

한류 2000년대 초부터 싹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드라마들이 중화권 우선방송을 통해 방영되기 시작했고, 이어 가을동화가 인도네시아 공중과 텔레비전 방송인 인도네시아에 방영되면서 다른 방송국에서도 한국드라마 방영이 늘었다. 미국 팝송이 흘러나오던 자카르타 시내 상가에는 겨울연가 주제가를 시작으로 K-pop 가요들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후 인도네시아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유리구두, 겨울연가, 팝콘, 호텔리어, 풀하우스, 궁, 대장금, 선덕여왕까지 한국드라마들이 꾸준히 방영되고 있다.

초기에 비디오와 텔레비전 방영으로 한국드라마와 가요가 보급되던 시기에는 한국 업체들이 아닌 중화권 화교네트워크를 통해 이들 콘텐츠가 유입·유통되면서 현지 화교층에서 한류팬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IT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한국드라마와 가요를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직접 접하거나 불법복제품이지만 손쉽게 DVD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한류팬이 인도

네시아인으로 확대됐다.

지난 10년간 한류는 일본에서 시작돼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를 거쳐 비교적 늦게 인도네시아에 도달했지만, 최근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말한 기술적인 발전, 초기 소개 단계를 거쳐 익숙해지는 단계에 접어든 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는 점 등이 한류확산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드라마가 인도네시아에 방영되던 초기 작품인 가을동화의 경우 한국어를 직접 인도네시아로 번역하지 않고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인도네시아로 번역해 오역이 많았고 더빙하는 성우의 목소리와 배우의 대사 톤이 맞지 않아 감정이입이 어려운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2006년에 방영된 대장금은 오역도 줄고 성우와 배우의 대사 톤을 거의 일치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류드라마가 인도네시아에 정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텔레비전에 방영하는 드라마 가운데서 한국드라마를 모방한 드라마도 가끔 접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텔레비전에서 처음으로 한국드라마를 접했을 때는 과연 현지인들이 우리 드라마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까? 또 현란한 춤과 노래가 등장하는 인도 드라마와 80년대 우리나라 드라마와 비슷하게 극적인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펀지계 드라마에 익숙한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이 한국드라마를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드라마가 인도네시아인을 사로잡았다.

미국 CNN은 지난해 12월 31일 ‘한류 대중문화 아시아 휩쓴다’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류(韓流)로 통칭되는 한국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휩쓸면서 한국이 ‘동방의 할리우드’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기 배

경에는 콘텐츠의 질이 높으면서도 미국 등 서구에서 제작한 콘텐츠보다 가격이 싸다는 점, 더불어 유교에 기반을 둔 문화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CNN은 분석했다.

앞서 현지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는 한국드라마의 매력으로 멋있는 주인공, 윤리적이면서도 공감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줄거리 구성, 세련된 연출, 신비함과 신선함 등을 언급했다. 이 신문은 사계절이 있는 한국의 자연과 동남아시아와 다른 한국 특유의 분위기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신선하고 신비하게 느껴졌고, 윤리적으로도 서양작품과 달리 가족들이 함께 보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점이 한국드라마의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K-pop이 유행하면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가수의 공연은 쇼케이스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수년 새 본격적인 공연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한류스타 ‘비’가 자카르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고, 샤이니를 비롯한 다양한 한류 스타의 공연이 열렸다. 특히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인도네시아-한국문화주간 행사의 일환인 K-pop 콘서트와 경연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K-pop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K-pop 경연대회에는



현빈이 인도네시아 명예해병으로 임명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빈이 인도네시아 해병대 관계자와 김영선 대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아이돌그룹의 춤과 노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커버댄스 그룹부터 솔로 가수의 노래까지 다양한 곡을 소화하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출전했고, 콘서트에는 한류스타들이 대거 출연했다. 한류팬들은 이들이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와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한류스타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즐기는 모습이었다.

한류의 확산과 한국기업의 시너지 효과

이러한 한류열풍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대장금이 방영된 직후 LG전자는 이영애를 모델로 내세워 현지 시장을 공략했고, 삼성전자는 시크릿 가든 방영 후 인기가 높아진 현빈을 모델로 광고를 하고 있다. 자카르타 중심도로를 지나다 보면 삼성 LED 모니터와 함께 매력적인 웃음을 진 현빈과 여러 차례 마주친다. 한국을 찾는 인도네시아 관광객도 지난해 9만5천명에서 올해 10만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에 자카르타 사무소를 개설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한국에 취업하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 증가한 점과 한국드라마와 K-pop의 가사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한국어 배우기로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학들에 한국학과와 한국어 과정이 속속 생기고, 한국어 학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과목을 개설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 정부도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7월에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을 개원하고, 한국 알리기와 한류 보급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보급단계이고, 주류문화로 자리잡으려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수하르토 독재정권의 몰락을 겪으면서 인도네시아는 구심점이 됐던 국가권력이 약해졌고, 오랜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를 압도했던 미국과 유럽 및 일본 기업과 문화가 주춤한 사이 한국 기업과 한류가 틈새를 차지했고 간발의 차로 중국이 진출을 시작했다.

경제, 정치, 스포츠, 문화 등 분야에서 앞선 한국은 새로운 목표 또는 발전모델을 찾으려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됐고,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들은 인도네시아에 파고들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인에게 한류는 서구문화보다 이질감이 적고 일본 등의 선진국 문화보다 접근하기 쉬운 동시에 접해보지 못한 신선함이 있다.

하지만 신선함은 익숙해지면 사라지게 되므로 한

류를 지속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한류는 중국의 화류와 일본의 일류와 스스로를 차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류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는 흐르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과시하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교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한류가 틈새문화에서 주류문화로 발전하려면 한국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현지인들이 직접 한류 콘텐츠를 찾아서 참여하고 만들고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중국진출에 성공사례로 꼽히는 가수 장나라가 최

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대중화에 참고가 될만하다. 그는 한국 가수들만 등장하는 공연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가수들이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나라는 내년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해보고 싶은 일로 공연을 꿈으면서 “진짜로 화합이 되는 공연을 하고 싶다. 가끔 보면 한쪽이 과시하는 공연이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그게 거북해 보인다. 그냥 양국이 잘 어울려서 진짜 우정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해봤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KOFA 회원들 BISS 2011 행사 참석 KMK 그룹 송창근 회장 ; 명사 특강, 큰 호응 얻어

신발산업을 주제로 한 시민축제의 장 “2011 부산 국제첨단신발·부품전시회(BISS 2011)가 10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되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BISS 2011은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업계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국내외 신발관련 기업 대표 인사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세미나 및 대형 부대행사가 준비됐다.

전시 첫 날(13일) 개최된 “범 한국 신발인 대회”는 FTA시대를 맞아 신발업계의 글로벌 네트워킹과 해외 현지 조직 구성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취지로 기획, 업계를 리딩하고 이는 두 명사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는데, 월라코리아 윤윤수 회장이 격려사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 인수/합병 및 성공 전략’에 대해 강의하고, 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장을 맡고 있는 KMK Group 송창근 회장이 “인도네시아 신발인 성공신화 및 신발산업 Vision 전략”에 대

해 설명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의 한국 언론에서는 송창근 회장을 한국이 낳은 신발업계의 거장으로 소개하며 300달러에서 시작해 직원 2만명, 매출액에 2억 달러에 이르는 회사를 경영하게 된 송회장의 입지전적인 성공스토리와 종업원 중심의 경영철학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했으며 명사 특강 또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80년대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해외 투자로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게 된 글로벌 한국 신발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BISS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송창근 회장과 홍중서 신발협회사무총장을 비롯한 13명이 참석했다. 인니팀은 12일 신발 부자재 업체로서 세계 최대 규모와 44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사장구에 위치한 (주)대성공업을 방문 시찰하고 경영방침과 성공담에 관해 들었으며, 개막식과 전시회 등 부대행사에도 모두 참여했다.



한국문화원 한국어반

귀신도 무섭지 않아요~~

한국어 매력에 푹 빠지다



10월 20일, 목요일. 한국문화원의 한국어반을 방문했다.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 평일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은 대부분 직장인이라고 한다. 피곤할 터인데 그 저녁시간에 모인 학생들의 표정은 모두 발랄했다.

“대부분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등이 좋아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학문적인 접근보다 학생들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수업준비를 하던 기초2반 홍오선 강사의 말이다.

기초1반과 기초2반의 수업이 있는 목요일. 기초1반(강사 박성혜)에서는 숫자 읽기가 한창이었는데 어찌나 즐겁게 공부를 하던지 기자도 그만 옆자리에 앉아 같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났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시청각자료실에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누는 학생들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눠봤다.

“한국하면 k-pop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슈퍼주니어, 장근석...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주도 정말 가보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정보를 찾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한국에 가봤는데, (거리에) 인도네시아 표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문화원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교류의 장소로 잘 이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한국문화원)가 더 넓어서 많은 사람이 배우러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배우러 올 때마다 하나씩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Yulia Shinta Dewi, Getria Lasra, Cut Vitarie Hadiana 등 ... 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강사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총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당종례 부원장은. 이곳에서 과정을 다 마친 학생들은 통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하고 싶다는 일 중의 하나는 한국에 가서 지금까지 배운 한국어를 실제로 써보고 싶다는 것이라고 한다.

“하루 일에 지쳤다가도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과 있으면 모든 것을 잊는다. 피곤한 것도 잊고 끝내야 할 시간을 넘겼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은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좀 전에 배운 것을 자신이 이해할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 오죽하면 귀신 나온다고 해도 무섭지 않다는, 그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에는 당할 수가 없다” 고 말하는 당종례 부원장

에게서 고단함이 아닌 보람이 느껴진다.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드라마나 케이팝을 더 잘 알기 위해 한국어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습으로 달라진다고 한다. 단순한 관심과 흥미를 넘어 실용성까지 목표의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주경야독을 하는 직장인들이라고 한다. 일도 열심히 하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며 자신을 굳건히 일으켜 세우는 모습들이 아름답다. 현재 한국문화원의 한국어과정은 15반 2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창기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만만치 않은 규모로 커져있다. 게다가 최고반이라는 고급반 학생도 10명이나 된다.

장소가 좁아서 더 많은 학생을 받아들일 수 없고, 효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초반의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나가며 체계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문화원을 “그곳에 가면 한국어를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배움터로 만들고, 한국을 좋아

하는 인니인들이 격의 없이 드나드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당중례 부원장의 바람이다.

자카르타한국문화원(원장 김현기)이 자카르타 최대 대로인 ‘JENDRAL SUDIRMAN’의 상업 중심지인 ‘SCBD’ 지역 ‘Equity Tower’ 17층에 자리 잡고 정식 개원한 것은 2011년 7월이다. 연면적 864㎡의 공간에 전시,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180석 규모의 다목적 홀, 도서관, 멀티미디어 룸, 4개의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김현기 초대원장은 “문화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는 한류를 부흥시키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첨단 IT(정보기술)를 활용해 한류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글강좌를 역점을 두어 추진, 현지인들에게 더 쉽게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어 강좌, 문화 강좌, 상설·특별 전시회, 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체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명작가들의 그림을 직장 내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걸어 다니는 미술관’을 계획, 11월 30일까지 관심 있는 기업체의 신청(id.korean-culture.org)을 받고 있다.



자카르타한국문화원에서 알립니다

걸어 다니는 미술관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에서는 본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직장 내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근하는 길 또는 점심식사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예술 감상의 여유를 즐기세요~~

신청 / 마감 : 한국기업 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 / 2011년 11월 30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id.korean-culture.org) 작성하신 후, 전시할 장소의 사진, 편지를 첨부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메일 주소: kccindonesia@hotmail.com



지에는 탁구남녀개인전에서 권장명, 황길복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 종합 은메달 3개를 획득해 해외동포팀 중에서 종합순위 7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창단 3개월 만에 5개 종목(축구, 볼링, 테니스, 골프, 탁구)에 출전하여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

“어떻게, 인도네시아팀이 첫 출전인데도 조직력과 운영에 최고수준인지를 배우고 파악하라”는 특별메시지가 대회관계자들 사이에서 나돌 정도로 이번 체전에서 인도네시아 팀이 최고 이슈였다고 동반했던 취재팀들은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양영연 회장은 “역대 첫 출전에 메달획득은 인도네시아가 처음”, “이는 선수 사기와 동포들의 응원에 힘입은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제92회 전국체전은 총 44개 종목에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 등 선수와 임원 2만4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그 중 해외동포는 18개 대한체육회 가입국가 중에서 17개가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인도네시아체육회 팀은 71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참가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대안체육회 은메달 3개 획득, 종합 7위 인니팀 대회 조직과 운영 최고 이슈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에서 개최된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회장 양영연)가 첫 출전하여 종합순위 7위를 기록한 역사적인 대회가 되었다.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는 체전참가에 앞서 지난 10월 4일에 김영선 주인니한국대사와 체육회임원진, 선수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카르타한국문화원에서 결단식을 갖은 바 있다. 결단식 때만 해도 ‘처음 참가’ 하는데 큰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팀 최초로 테니스/김현숙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막바

김희익 사무총장은 체육회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체전참가의 축제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이번 체전을 통하여 금메달은 준비하는 팀에게만 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출전종목의 선수층 저변확대, 조직적인 훈련 그리고 공정한 선수선발 다른 나라 팀의 벤치마킹 등 우리는 조용히 차분하게 일 년 후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며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2012년, 제93회 전국체전은 대구에서 개최된다.체전참관기 48쪽에 이어짐



한-인도네시아 사회적책임(CSR) 포럼 개최

10. 6. ‘한-인도네시아 사회적책임(CSR) 포럼’이 릿츠칼튼호텔(꾸닝안)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주인니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영선 한국대사, 승은호 KOCHAM 회장, 기따 위르자완 인니 투자청장 및 소피안 와난디 인니경총 회장, 인니 소재 우리 기업 및 인니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CSR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매경TV의 정완진 부장과 김창년 외교부 동아시아 통상과장도 포럼 참석을 위해 인니를 방문했다.

김영선 대사는 개회사에서 CSR은 “건전한 노동관행, 환경보호, 공정경쟁, 사회공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사관에서 CSR을 금년도 중점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기따 위르자완 투자청장은 축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인들의 진정한 모델이 되고 있다고 경의를 표하며, 요즘과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는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현지 사정에 맞는 고용창출과 도로, 학교, 병원을 건설하는 CSR활동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소피안 와난디 경총회장은 한국기업 CSR활동이 경총과 긴밀하게 협의되



기를 희망하였으며, 승은호 KOCHAM 회장은 인니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이루는 한인사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커져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진정한 CSR은 기업인과 임직원들의 현지화 우선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사관 개최 CSR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수상기업, 한인뉴스 10월호 참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삼익약기, 코린도그룹, Krakatau-POSCO 및 Astra International Group이 자사의 CSR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인니에서 활발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PT CSR Indonesia의 Jalal 사장이 인니 내 CSR 활동의 역사 및 향후 전망에 대해, MBN(서울)의 정완진 방송본부총괄국장이 Global CSR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또한 우리나라 법률회사와 Samil PWC 회계법인은 인니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CSR 재단설립 관련사항 및 법·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엑스포 2012 여수코리아로 오세요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 이하 조직위)는 제2회 인니국제해양수산박람회(10.6~9, 자카르타)와 2011 해양박람회(10.7~9, 수라바야)에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해 폭풍홍보를 펼쳤다.

자카르타컨벤션센터에 설치된 홍보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은 여수가 어디인지 물으며 파관리본에 성

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벽에 붙였다. 또한 여니, 수니와 사진을 찍어 즉석에서 사진을 받아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여수세계박람회 마스코트인 여니와 수니는 물방울과 플랑크톤을 형상화한 것으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를 표현한 것이다.

KOICA, 인도네시아 해안보호 및 관리정책사업 ‘제3차 WORKSHOP’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 박대원)은 10월 18일(화) 자카르타 샹그리라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안보호 및 관리정책사업’의 ‘제3차 WORKSHOP’ 행사를 개최했다. 한-인니의 해안관리정책, 해안보호 및 지형정보 관리전략의 논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안지역의 위험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

지난 달 27일, 충청북도 옥천군 수출개척단(단장 이재하 농축산과장)이 한인회와 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옥천군 농산물의 수출 확대, 품종 다양화의 여건이 되는지, 시장 및 선호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옥천군은 옥천해외수출개척단(단장 이재하 농축산과장)은 지난 9월23일부터 28일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방문하고 특판행사와 바이어상담을 통한 농특산물 수출개척에 나서 옥천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부터는 이들 국가들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포도, 배, 쌀 등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하 과장은 “우리고장 농특산물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을 위해 내년

동남아 농특산물 수출개척 나선 옥천해외수출개척단 농민은 농사, 판매는 농협!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또한 이번 수출개척단 파견으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감대 형성 △지역농산물 수출 가능성 판단 △재외교포와 우호 증진 효과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 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배를 전략적으로 수출하는 한편 현지 유통업체에서 옥천농산물에 관심이 높아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통해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하 단장은 “현지에서 옥천군의 조합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까지 함께 참여해 높은 신뢰를 얻어 상담이

홍보부스를 상담역 퍼니(Funny) 양은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수가 어디냐고 묻는다”고 말하며 “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홍보물을 보며 성심껏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내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여수에서 개최된다. 행사를 앞두고 조직위원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 위한 이번 워크숍에 한국대사관의 이희섭 공사, KOICA 최성호 사무소장, 인니측 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 Dady Priatna 차관, Dony Azdan 수자원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본 사업의 시행업체인 대영엔지니어링 (PM 이영택 전무), 지오투정보기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양국 컨설턴트 등이 사업소개, 해안관리정책, 해안보호 및 국가지형정보의 관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해안보호 및 관리에 대한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반침하, 침수 등 해안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중인 본 사업은 △

중장기 해안보호 및 관리정책 로드맵 수립, △최우선 보호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해안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침하, 침수 등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정부의 대외무상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통해 한국의 선진기술 및 관리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인도네시아에 전수함으로써 한국의 선진기술을 널리 알리고, 한-인니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하게 진행됐다”면서 “내년에는 옥천군수를 비롯한 최고책임자 방문단을 구성해 수출협약을 위한 전략품목을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인도네시아로 포도를 수출해온 군서농협(조합장 곽인상)은 그동안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곽인상 조합장은 “소규모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어려움은 이제 확 풀릴 것 같다”며 “수출용 포장재 지원이 필요하고 현지 유통망과 한인회에 대한 인맥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수출 품목의 다각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내년부터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교섭에 나서겠다는 계획으로 국가별 수출



전략품목을 선정, 육성하고, 군최고책임자를 포함한 방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량을 확대하는 한편 배를 수출하고 싱가포르를 한인들을 대상으로 쌀을 전략적 사업으로 수출하고 한인 학생용 농산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회의사무총장 한인사회 각계 대표와 간담회 가져

10월 28일 권오을 국회의사무총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회를 예방하고 국립박물관과 따만미니 등 문화시찰을 했다.

오후에는 대사관(이동관 공사, 정병원참사관)과 한인회(부회장단 및 사무국장), 코린도장학재단(정무웅 이사장), 무지개공부방(고재천 목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재인니 한인사회의 동정을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초기 교민사회의 형성과정부터 2세 교육의 문제점, 기업진출과 운영실태,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 등 현재 한인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영사관을 포함한 한인회 건물 재건축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여수세계박람회본부 - 국내외 자원봉사자단체 박람회자원봉사자 MOU 체결

10월 19일 여수세계박람회본부에서 자원봉사자를 총괄하는 김길수 센터장 주재로 국내외 각 단체 자원봉사자 대표 28명이 모여 조직본부와 MOU 체결식이 있었다. MOU 체결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 민주산악회, 빠른거북이 등 28개 시민단체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학생과 교민 70여 명,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한국자유총연맹인니지부 이태복 수석부회장이 28개 시민단체대표로 조직본부 측과 MOU를 맺었다. 김길수 센터장은 각 대표들에게 앞으로의 활동에서 박람회의 얼굴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고 앞으로의 수고를 격려했다. 이태복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여수세계박람회의 부족한 홍보를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POP 등 한류의 열기를 잘 활용하면 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리는 좋은 매개체가 되겠다는 조언을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자원봉사자들은 해외경험이 풍부하고 2-3 개 언어가 가능하므로 고급 자원 봉사자임을 설명하고 일반봉사자보다 통역에 배정하여 고급인력으로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이태복>



하나은행 2012년도 경계 전망 세미나

하나은행(은행장 최창식)이 ‘2012년도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0월 18일, 캠핀스키호텔에서 열린 세미나는 150석을 모두 채울 정도로 많은 CEO들의 진지한 관심과 기대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로 마무리되었다.

윤용로 하나금융그룹 글로벌부문 부회장은 “현재 세계경제는 버블이 꺼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때에 세계경제를 전망하고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인니경제에 대한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하며 위기를 긍정적인 사고로 발전시켜 성공을 이루어나가자고 주문했다.

세미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들의 <글로벌

금융 불안의 근본 원인과 향후 전망(장보형), 아시아경제의 성장과 전망 :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곽영훈), 글로벌 금융 불안 영향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전망(정귀수), 감속시대의 메가트렌드 변화와 기업경영(도철환)과 최근 세무 이슈(김근호 세무사의 한국세무 강의)로 이어졌다.

박성호 부회장은 “단순 자금이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친 지식경영을 강화하여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세미나의 의의가 있다”고 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형식으로 핵심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세무사와 하나은행 Private Banker가 기업과 개인의 한국자산관리 상담이 18일 당일과 19일까지 이어졌다.

재인니상공회의소 신입 부회장



안 광 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경석 부회장(동성화학)이 지난 8월 1일자로 한국으로 귀임하게 됨에 따라 신입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1996년 (주) 한화 주재원으로 파견 나와 인도네시아와 인연을 맺은 안광진 부회장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Ernst & Young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지난 6월부터 코리안 데스크를 맡고 있다. 언스트영은 세계적인 회계자문사로 한국에는 한영회계법인과 합작으로 언스트영 한영이 활동중이다.

홈페이지인 www.ey.com/id 를 방문하면 언스트영 인도네시아와 언스트영 한영의 자세한 활동상황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전 직원
희망의 잔치**

**동중인도네시아
창립
20주년 기념식**



“20주년이 있기까지 회사와 함께 동거동락한 한국임직원 및 현지인 종업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드리며, 꾸준히 당사를 지원해준 300여 거래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중인도네시아 대표 조규철 -

동중인도네시아(대표 조규철)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4일 PATRA JASA EVENT HALL에서 개최되었다.



1991년에 창립한 동중인도네시아는 플라스틱-폴리백을 생산하는 회사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현재 4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발전과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인니 한인사회의 유망한 한인기업이다.

기념식은 승은호 코린도 회장과 몇몇 거래처 대표 외에 외부인사 초청은 별로 없이 사원들 위주로 열렸다. 조규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기업이 인니에서 2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한 것은 인니와 한국이 좋은 관계를 이루어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24시간 열심히 일을 한 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들 덕분에 지금의 회사가 있는 것이다”라고 회사가 2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모든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20주년 기념 케이크 절단에 이어 근속사원과 우수사원 표창이 끝난 후 여흥시간이 되자

동중인도네시아 20년의 진짜 저력이 드러났다. 하나 둘 무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사원들이 큰 무리를 이루며 조출하게 시작했던 기념식이 환호와 자축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사측에서 퍼 놓은 일방적인 잔치마당이 아닌, 노와 사가 하나로 소통하는 축제, 함께 어울려 노래와 춤으로 자축하는 시간이었으며 긍정적인 미래를 이어나가도 좋다는 동중인도네시아 전 직원의 희망을 승인하는 한마당이였다.



작지만 강한 외사! 동중인도네시아

- 1991. 1. CURUG 1공장에서 생산 시작
- 1993. 5. CURUG 1공장 내 제2건물 증축
- 1995. 7. KBN CAKUNG 2공장 설립
- 2010. 1. KBN CAKUNG 2공장 내 PVC BAG 사업부 신설

~~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 펼쳐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지사장 권종술)는 10월 하순과 11월 초순에 걸쳐 관광특판 행사를 3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10월 하순에는 인센티브 관광 관측행사와 의료관광관측단행사를 개최했으며 11월 초순에는 동계관광상품을 주력으로 관측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10월 21일 캄핀스키호텔 볼룸에서 열린 인센티브관광 관측행사에는 제주관광공사, 대전컨벤션뷰로 등 한국업체와 MICE전문여행사, 이벤트기획사 등 현지업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MICE란?

기업 등의 회의(Meeting), 기업 등이 실시하는 포상·연수여행(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ravel), 국제기관·단체, 학회 등이 개최하는 국제회의(Convention), 이벤트, 전시회·견본시(Event/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많은 집객(集客) 교류가 예상되는 비즈니스 이벤트의 총칭.

레드캡마이스 홍보부스의 장운영 과장은 “내년 한국행 단체 증가를 위해 네트워킹 강화를 목표로했다”고 행사참여의 이유를 밝히며, 개인여행자의 경우 비자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제주뷰로의 김륜관 대리는 “인니시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제주가 인니에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것은 제

주에 대한 인상을 남겨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여행상품의 특성상 고객유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 리츠칼튼호텔과 간다리아시티 몰에서 개최된 의료관광관측단 행사는 한국의 의료기관 7곳과 대행사 4곳이 참여했다. 현지에서는 병원관계자와 주요 클리닉 관계자, 의료보험사, 관련 매체가 초청되어 의료관광설명회와 업계상담, 일반인상담 등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인 의료수준과 저렴한 비용, 친절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다.

26일 의료관광홍보설명회장에서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다.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산드라 데위(Sandra Dewi, 모델, 영화배우)는 현재 인도네시아 젊은층을 사로잡고 있는 톱스타이다. 이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의료관광상담에 관계자와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



2011년 서울프라이즈 우수상 인도네시아 K-TV ‘황금을 캐는 집시’



인도네시아 북부 슬라웨시 마나도의 따멜루 광산. 오로지 정과 망치만을 가지고 100m 이상의 땅 속을 파고 들어가 목숨을 걸고 금을 찾는 마나도 금광 광부들의 힘든 삶을 통해, 황금보다 더 소중한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한 KTV의 ‘황금을 캐는 집시’가 2011년 서울프라이즈 해외 한국어방송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황금을 캐는 집시’는 그동안 한인과 교민역사 중심의 역대 서울프라이즈 수상작과 달리 현지 외국인의 삶을 다룬 유일한 작품으로, 해외 한국어방송에 국한된 프로그램 소재를 탈피하며 프로그램 소재의 다양성을 제시한 것으로 수상에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 해외 한국어방송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0년 ‘오랑 꼬레아의 아리랑’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인도네시아 KTV의 우수한 제작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 한국어 방송과 인도네시아 교민들에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KTV의 다음 작품을 기대한다.

서울프라이즈 시상식은 11월 15일 한국시간 17시 10분부터 18시까지 KBS WORLD를 통해 세계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ktv>

제6대 반동한인회장 선임



반동한인회에서는 10월 28일 제6대 반동한인회장으로 하서호 (PT.SENGBIN 대표)를 선출하였다. 이번 선거는 전직 한인회장, 고문단 등으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아, 30여 명의 반동교민과 운영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추대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서호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반동교민이 현재 1,000여 명이지만 언젠가는 2,000명 이상 계속 늘 것으로 보이며, 먼 장래를 보고 후대를 위한 반동한인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그러기 위해선 “진정으로 반동교민 화합을 위해 힘쓸 것이라” 말했다.

마음의 빛으로... 소외된 세상에 따뜻한 불을 켜니다 대구시각장애인예술단, 자카르타 공연



10월 27일, 대구시각장애인예술단이 인도네시아를 찾아왔다. 최영진 단장을 비롯해 15명의 예술인이 자카르타의 ICA(International Child & Academy)에서 오전공연을 마치고 오후에는 풍물놀이와 민요, 인니 노래로 망가라이 역 부근의 공원에서 현지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오후 한 때를 선물했다.

대구시각장애인예술단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공연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써 오고 있다. 2등급에서 6등급까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 예술팀은 본인들 스스로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번씩 해외공연을 통해 한국문화를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일본에서 한일음악교류회와 히로시마 푸드페스티벌공연에서 공연을 다녀왔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해피밥퍼센터를 운영하는 최원금 목사가 배연자 씨(전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을 통하여 소개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공원에는 예술단과 해피센터의 자원봉사자, 최 목사가 운영하는 방과후교실



아이들이 모두 모여 시골동네의 잔치마당을 연상케 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 예술단은 준비해 온 맹인을 위한 지팡이 25개와 한국의 부채 25개를 이곳 주민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1986년부터 공연단의 창단 멤버인 서정한 씨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 깜짝놀랐다. 인니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한다”며 박수가 많이 나오고반응이 좋으면 더 신이 난다고 피곤함도 잊은 채 즐거운 표정으로 상기되어 있다. 이들은 자카르타 공연이 끝나면 발리에서 한 차례 공연을 더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에 빨리 돌아가서 급식 나누어 주어야 해요... “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최단장의 답변이다. 한국에서도 쉬지 않고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며 예술단에 보여주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한다. 예술단은 일주일에 4-5차례, 1,200명에게 무료급식을 나누어 주고 있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우리 예술단은 장애의 벽을 넘어서 예술활동으로 사회적편견 해소와 장애 재활 및 자립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빛으로, 소외된 세상에 따뜻한 불을 켜는 이들, 그 불빛이 다름아닌 자신의발을 비추는 등 불임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코윈 총회

임원진 개편과 담당관 이-취임식

회 장 : 이순재
 부회장 : 정영순 (골프 티칭프로)
 총 무 : 모순옥 (컴퓨터홍교육 프로그래머)
 김명화 (밀알한글학교 교사)
 회 계 : 정수주 (어깨동무 카운슬러)
 서 기 : 조은숙 (한국문화원 한국어 교사)
 김석주 (밀알한글학교 교사)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새롭게 시작한 제 5기 담당관(이순재)과 4기 담당관(배정옥)의 이.취임과 개편된 임원진들이 정식업무를 시작하는 중요한 모임이었다.

배정옥 전임회장은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여성이 되어주기 바라며 갖고 있는 재능들을 사회에 공헌하는 자세도 필요하며 새롭게 출범한 제5기 코윈을 전후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이임사를 했다.

홍혜선 고문(주인니대사부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코윈 회원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여성으로서 일과 자녀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 더욱 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여성들이 더 떨치고 일어날 시기이며 지금의 작은 움직임이 차세대 여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크게 작용할 것” 이라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순재 신임회장은 “기존의 사업들을 승계해 나가며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한인여성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고 차세대 여성리더 발굴을 위한 다양한 각도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 임을 밝혔다.

이어진 회의석상에서 조은숙 회원의 2011년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울산대회 참가후기와 11월 30일에 개최될 “차세대 여성 역량 강화” 세미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차세대 여성을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주 제 : 차세대 여성 역량 강화
 장 소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날 짜 : 2011. 11. 30. (수) 14:00~18:00
 참가신청 : 참가신청 (무료)
 모순옥 0821 2438 8272
 김명화 0818 737 874

(사)한*인니문화연구원-BINUS대학 우수한 현지 인력 확보 및 한국어 가능 인력 확보를 위해 ‘한국어 산학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난 12일, (사)한*인니문화연구원(이사 김상태)과 BINUS대학이 ‘한국어 산학 인력 양성과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어 산학 인력 양성과정’은 주인니한국대사관과 중소기업청, (사)한*인니문화연구원(이하 문화연구원)의 한국어 보급 협력 사업이다. BINUS 대학생을 위주로 한국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중 영어와 사무자동화 등 우수전공자를 선발하여 한국의 문화, 예절, 실무를 강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기업체가 기대하는 우수한 현지 인력 및 한국어 가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선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선 대사, 김상태 문화연구원 이사, 하르잔 또 뿌라보워 BINUS대학 총장, 베르나드 구나완 BINUS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과 참가신청자 700여 명이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김 대사는 “한국어 수요가 늘고 있는 최근에 비누스 대학의 한국어 산학인력 양성과정 개설은 시기적절한 일이다. 특히 이 과정은 한국기업이 인니인에게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업무나 태도 등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프로그램과 달리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이 (인니 젊은

이들이) 한국기업에 더 많이 근무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축사하며 문화교류를 통한 양국 우호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비누스대학의 뿌라보워 총장 역시 언어를 통해 양국이 더욱 굳건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비누스대학과 문화연구원 간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 김상태 이사장은 “한-인니 경제협력 확대와 한류 등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지만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 없이는 좋은 관계가 오래 가기 어렵다”며 “한국어보급은 우리 문화의 확산은 물론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협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의 세미나는 비누스대학과 문화연구원 간 양해각서 체결과 주제발표 -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숙명적 관계(박성천)’, ‘산학인력 양성과정의 필요성과 당연성(대학측)’으로 이어지며 언어를 매개로 한 양국의 우호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의 대학과 고등학교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고 한국어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과정 개설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달부터 한국어(초·중·고급) 과정과 비즈니스 반 등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인 문화연구원 측은 중·고교에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자카르타 시내 14개 고교가 한국어과목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 달과 다음 달에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내년까지 비누스국 제중·고교에 한국어과정을, 비누스대학에는 ‘한국의 산업·교육·문화’를 학점제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한국어 보급’ 사업을 기점으로 양국 간의 교류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양국의 문화, 역사, 사회, 경제 등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가장 큰 애로사항이던 현지 우수 인력 확보 문제(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 “지금부터 양성될 인력의 활용으로 각 기업체 및 단체, 개인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사)한*인니문화연구원은 BINUS대학 및 BINUS Center와 함께 ‘한국어 산학인력 양성과정’ 과 인도네시아 초, 중, 고등학교(특히 SMK)에서 한글과 한국문화, 전공실무를 가르칠 유능하고 참신한 강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장익환 특수교육팀장 0878.8455.8357)

YOON SONG, 피아니스트 윤송원 독주회



‘피아니스트 윤송원 독주회’가 13일 에라스무스 하우스에서 열렸다. 바흐의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라단조(Chromatic Fantasy and fugue, BWV 903)의 다양한 화성과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선율로 독주회의 서막을 연 윤송원 씨는 슈만과 라우타바라, 리스트 등 고전과 현대음악의 폭넓은 세계를 넘나들며 다이내믹과 판타스틱을 아우르는 연주로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10살에 인니로 이주하여 중학과정까지 자카르타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윤송원 씨는 한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연주를 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예술의 전당, 금호아트홀, 부암아트홀, 쇼팽홀, 호암아트홀 등 수많은 연주회장에서 독주 및 실내악과 협연무대를 펼친 바 있다. 특히, 국내 유명 음악잡지인 ‘음악춘추’와 ‘피아노음악’ 등 음악전문지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21세기 피아니스트’와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실리기도 했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세종문화회관 챔버홀과 금호아트홀의 독주회, 예술의 전당에서의 협연무대가 계획되어 있다.

학부모샤프론봉사단 2급 연수 마쳐



재외한국학교로서는 처음으로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이 결성된 이후 3급 연수에 이어 지난 10월 10일(월)에는 2급 연수를 가졌다. 연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감동과 인성계발, 자기 변화의 계기를 부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생봉사 지도방법, 학생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기주도학습 지도방법 등을 주요 골자로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그동안 JIKS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은 밥퍼해피센터 봉사, 수까부미 지역사회봉사와 통역봉사, In-donesia Heritage Society 번역봉사, 앨범제작봉사, 그리고 Yayasan 'Sinar Pelangi' 고아원 일일봉사, 무지개공부방 등 현장체험 봉사활동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연말에는 인도네시아 Goodneighbors와 봉사 협약식, 봉사활동 모음집 발간 등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은 학교, 학부모, 교민사회, 지역사회 상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더욱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채상진 담당교사는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이 봉사활동의 선봉대로서 지역사회에는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나눔과 배려의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JIKS 가족들의 응원과 협조를 바란다.” 는 당부 의 말을 남겼다.

샤프론봉사단이 지역사회봉사의 구심점이 되어 학생들에게 봉사의 참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사 제공 : 이익범 직스교사>

인도네시아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

10월 14일부터 인도네시아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재외투표소 운영, 선거범죄 예방·단속, 재외투표관리관이 수행하는 선거관리 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인도네시아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1월 18일까지 운영되며,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2011년 10월 17일 제1차 인도네시아대사관재외위원회 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장(김문환)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였다. 김문환 위원장은 선거참여를 위한 홍보, 국외부재자 신고 등의 정확한 처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등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대사관재외위원회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제보센터 ☎ 0811-108-2357, 021-2992-3030)

정성환 군(JIS 12), 각국 주요 인사들 앞에서 한국 학생 최초로 JIS 홍보대사 역할 특특이...



지난 10월5일, 한국인 학생으로는 최초로 정성환 군 (사진, 영어명 Joseph Jung, JIS 12학년)이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 대사와 인도네시아 주요 공무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인상적인 스피치를 선보였다.

정성환 군이 연설한 행사인 “Stakeholder’s Breakfast”는 JIS (Jakarta International School)의 교육 정책을 지지하는 각국의 주요 인사들과 JIS의 교장이 참석하는 매년 10월쯤에 열리는 행사다. 두 명의 학생 홍보대사와 교장선생님의 연설을 통해 매년 JIS의 교육정책을 알리는 자리인 것이다.

정성환 학생은 JIS라는 국제학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교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생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6개국이 참가하여 경합을 벌이는 IASAS 축구와 농구팀의 학교 대표로 4년간 뛰어왔고, 2개의 봉사활동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알아주는 IB Diploma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설에서 정성환군은 JIS라는 학교가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공부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봉사활동 같은 교외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JIS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긍정적인 영향을 표현하였다. 다문화적 환경 안에서, 또ww한 여러 가지 활동을 중시하는 학교의 태도가 글로벌 적인 사고 방식을 기르고, 코치와 선생님, 다른 학생들과 협동심을 넘어 교감 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JIS의 상임이사 이지영님께서 “처음으로 한국 학생이 학생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극찬하셨고, JIS의 교장인 Tim Carr 또한 “Outstanding ambassador for JIS (뛰어난 학생 홍보대사)”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정성환 학생에게 보냈다고 한다.

JIS라는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한국인이 대표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커졌다는 증거다. 이번 일로 하여금 한인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인도네시아 발리한인회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발리를 여행하시거나, 거주하시면서 어려운 일, 궁금하신 것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영사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 여권분실, 도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등 대사관 관련업무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리 관련 행사 및 동포안내문을 이곳에 공지할 것입니다. 발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발리 한인회 사이트 <http://cafe.daum.net/balihanin>

<제공 : 발리한인회>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사)한*인니문화연구원 제2회 인터넷공모전 시상식



(사)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 제2회 인터넷공모전 시상식이 Res. Pendopo Kemang에서 지난 10월 24일에 개최되었다. 한인회와 부인회, 한국문화원 등 관계 인사들이 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명사들의 시낭송회와 바틱 체험, 앙글룽, 사산도 연주가 어울려 아름다운 공명을 이루었다.

홍혜선 대사부인이 축사에서 “공모전의 제목,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를 보고 꼭 우리 생활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직책에 부과된 남다른 생활에 대해 언급하자 해외에서 살아가는 참석자들 역시 모두 공감과 일체감을 나타냈다.



식전행사 ; 참석자들이 바틱실습을 하고 있다



사산도 연주

인니 전통악인 사산도는 악기 만드는 법과 연주법이 까다로워 현재는 명맥이 거의 끊어져 가는 상황이다.

김상태 문화연구원 이사과 사공경 원장은 “이 자리가 한인니문화연구원의 존재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의 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는,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인니 생활에 적응하는 기본 토대일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알리는 소통의 장이 된다는 전제에서 작년부터 인터넷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 장르 역시 시와 산문 어느 장르나 가능하다.

꿈은 살아있다

- 경주마의 제2의 인생 -

얼마 전, 아들의 영국 요크대학교 졸업식 강당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졸업식에 초대된 모든 손님과 학교 총장, 교수들이 함께 일어서서 졸업장을 받은 모든 졸업생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영광스러운 졸업을 축하한다는 뜻으로 10분 이상이나 힘찬 박수를 쳐주었던 것이다. 이날은 아들이 힘들고 지치기도 했던 지난 수 년 동안의 유학 생활의 막을 내리고 가슴 뿌듯한 영광을 안은 날이기도 했다. 지난날의 추억이 한꺼번에 뭉게구름처럼 피어난다. 아들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영국의 A레벨 테스트 서류심사가 끝난 직후 영국으로 떠났다.

나는 아들의 유학을 말렸지만 녀석의 질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 후 3년 만에 옥스퍼드에서 만났을 때에도 대견함보다는 후회가 앞섰다. 무엇보다 유학 생활로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유학을 만류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후회가 더 컸던 것, 고등학교 2학년 때, 고통스런 수술을 몇 번씩이나 받은 일이 있어서였을까? 그런데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아들이 졸업장을 받다니, 내 아들만 졸업장을 받은 것처럼 한없이 자랑스러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작년 12월초, 사업 관계로 인도네시아로 이주했다.

처음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답답함도 느꼈지만 영킨 실타래 풀어가듯 하나하나 배우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금도 급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영어, 인도네시아어 또는 한글을 뒤섞어가며 말 할 때도 있다. 나이 50대 중반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다 보니 이해하기는 쉬우나 암기한 것이 그리 오랫동안 남아 있지 않아 늘 까마귀 고기를 먹으며 사는 기분이다. 그래도 인도네시아 사람들 체취를 느끼러 가끔씩 아내 뒤를 따라 가 보는 현지 시장은 인간 냄새가 폴폴 나는 세상 같아서 좋다. 시장에서는 야채, 생선, 고기, 음식 등을 파는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웃으면서 값을 흥정하기도 하고, 큰소리 지르며 사람을 모으게 하

고는 자기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는 모습들, 또한 서로 흥정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도 낮북히는 일없는 그냥 부담이 없는 곳,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곳, 검고 데데한 손과 굵고 깊게 주름진 얼굴들, 그런 모습 속에 문득 어릴 적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다. 우리 형제들을 여럿 낳고 제대로 산 후조리를 못해 양쪽 다리에 퍼런 혈관이 튀어나오고 다리가 통통 부은 상태에서도 하루 종일 서서 생선을 팔곤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곤 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 생활을 하던 중 <한*인니문화연구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회원 대부분이 여자 분들이라는 것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하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하여 보니 여러 가지로 좋았다. 그 중에서도 보고르 문화탐방을 끝내고 자카르타로 오는 돌아오던 차 안에서



의 시간, 차창 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어스름한 저녁의 가로수에 내릴 때, 그리고 차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느낌에 대하여 누군가가 시를 낭송할 때 풀꽃이 되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고 이런 것이 삶의 여유구나! 라는 생각도 하였다. 학창 시절, 국어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을 밤 깊은 줄 모르고 암송했던 시절,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과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등을 깜깜한 하늘의 별을 보며 큰소리로 암송하고 꿈속에도 불렀던 그 때, 어릴 적 추억을 오롯이 생각나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 곳이였기 때문이다. 한때는 문학청년의 푸른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쉽게도 접어야 했던 그 꿈을 다시 가슴에 불을 지피게 한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이다. 디

앵 고원과 족자의 보로부두르 사원, 뿌람바난 사원, 머라빠 화산, 화가 아판디 박물관, 왕궁 박물관, 보고르 식물원, 보고르 궁전, 꼬망의 여러 갤러리들, 도자기 센터, 해리 다르소노 박물관 등 적지 않는 곳을 다니며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곤 하였다. 특히 족자 문화탐방은 나에게 여러 감동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였다.

아직도 보로부두르 사원을 생각하면 가슴이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그 곳에서 바라 본 머라빠 화산의 장엄함, 산 정상에서 뿜어 나오는 힘찬 용트림과 함께 동트는 붉은 햇살의 조화로움을 사원에서 바라 본 풍경,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환상의 장면이었다.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앞으로 새로운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삶에 대한 희열과 열정을 가져다 주었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삶에 다시 제 2인생의 시작이라는 종소리가 울리고 소박하면서도 단단한 그러면서도 여유로운 인도네시아인들의 삶에 미학을 느끼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행운이었다. 사실 과거 나의 생활은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다를 게 없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무엇이든지 앞서 나아가야 하고, 패배는 곧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달려온 것이 경주마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어떨 땐 뜨거운 열정으로 승리를 쟁취하여 기쁨에 열광하였고 어떨 땐 비참하고 쓰라린 패배감에 잠 못 이루던 날들, 그것을 넘어 지금에 온 것이다. 나폴레옹의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독단의 채찍을 가족들에게까지 휘두르고 독려해 오지 않았던가?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의 삶은 나에게 많은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문학에 대한 못다한 꿈을 이루어 보고 싶고, 가족들과 더욱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 앞만 보고 달렸던 시절에서 벗어나, 지나온 날들을 뒤 돌아 보고 주위의 사람, 가족들이 함께 숨 쉬는 곳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들처럼.

이젠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찌면 지금부터가 너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젠 바깥세상의 뜨거운 태양과 세찬 추위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지난 시절에 경험했던 것처럼, 너도 희망과 좌절의 여러 순간들을 맞볼 것이라는 것을, 또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며, 훗날 아버지가 되면 너 또한 자식에 대하여서는 영광스런 상처를 가진, 소리 없는 『영원한 2인자』라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들이야! 아버지인 나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늘 너를 지켜 볼 것이다. 때로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여유가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소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들려주면서..... 때로는 꽃그늘 아래에서 청춘이 다 지나가도 아름답다는 것을 들려주면서..... 내 꿈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한 아들이야! 지금이라도 이 아버지를 한번 힘껏 안아 주렴. 비록 지금까지는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한 날개지만, 네가 힘차게 안아 주는 그 힘으로 나는 아직 못 이룬 내 꿈을 향하여 힘찬 날갯짓하며 푸른 하늘로 마음껏 날아 갈 수 있을 것 같단다. 그리고 난 비로소 이렇게 큰소리로 외치게 되겠지. 『내 꿈은 아직도 살아 있다. 그리고 꿈이 살아있는 한 나는 아직 청춘이다.』라고. 그리고 그 청춘기를 이곳, 소박한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맞이한다고.

수상 소감 ... 중에서

50대 중반의 평범한 삶에 <<한*인니문화연구원>>을 만난 것이 저에게 커다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살아 있다』라는 글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 싶은 글이기도 합니다. 어찌면 내 가족과 국가를 위하여서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며 사는 우리 아버지가 자식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애뜻한 사랑과 미래의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소박한 작은 꿈을 실현하고 싶은 열망을 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 당선작

구 분	일 반 부		학 생 부	
	제 목	이 름	제 목	이 름
대 상 재인니한국대상	꿈은 살아있다	이동균		
최우수상 재인니한인회장상	때로는 비를 맞으며 견고 싶었다	손희정	깔리만탄-지키고픈 인류의 숨결	JIS 12 / 김소희
우수상 한*인니문화연구원 이사장상	스마랑을 탐방하다	이현희	자바의 영혼 바틱 그리고 한복	JIKS 11 / 정효빈
우수상 재인니한국문화원장상	와양의 세상살이	정윤희	반동의 바람	JIKS 11 / 김나영
우수상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내 인생의 집을 지으러	김민정	까까 줌 이야기	GANDI 10 / 조승희
특별상 재인니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상	내 삶의 향기를 더해 준 깔리만탄	김종심	인도네시아 재미있게 살아가는 법	JIKS 10 / 박진수
특별상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상	수까 그리고 부미	김태화	사랑을 믿어요	JIKS 10 / 추이영
장려상 한*인니문화연구원상	도전과 기회의 땅	김현숙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음식 외교를 꿈꾸며	JIKS 11 / 정다경
	인도양 앞바다에서	김현정	달콤한 자연의 향기 담은 반동으로	JIS 8 / 이세연
	사산도 이야기	이태복	대사관 영사과 봉사활동에 대하여	JIKS 11 / 이정석
	반짝이 구두	김유경	의식주를 통해서 본 인도네시아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	AIS 10 / 정선영
	떠돌이의 인도네시아 청병기	이강락		

모두 안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글 : 이 중 현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부회장



안녕하십니까? 제92회 전국체전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한인회 회장님, 각 단체 회장님 그리고 인도네시아교민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해외동포 어느 분이랴 고국의 전국체전에 선수단을 파견하기를 열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동안 적잖은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28일 그렇게 열망했던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가 서울의 대한체육회로부터 재외 한인체육단체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도네시아 선수·임원단은 고국의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제92회 전국체전에 첫 출전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10월 4일 KE 628, 인천공항에 내리기까지=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올라본 듯 한 기분입니다. 아직도 설레는 가슴 가라앉지 않습니다. 앞좌석에 앉아계시는 영 영연 회장, 김희익 사무총장을 바라보면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선수단을 조직하고 훈련이며, 그 산재한 일들을 준비하고 처리해 오신 두 분의 심정은 어떨까? 그저 혼자서 이 걱정저 걱정으로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5개월의 짧은 기간 안에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 온 두 장수의 심정은 어떨까, 문득 온갖 상념이 스칩니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양영연 회장의 “금년에 바로 전국체전에 참가하

기로 한다” 는 지시가 떨어지던 순간, 사실 우리 마음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작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양영연 회장의 추진력과 인화력,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으나, 김희익 사무총장은 또 어떤 분일까? 궁금증이 임니다. 그러나 그 궁금증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꾸 매력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아니 그 분은 사람을 홀린다고(?) 해야 맞는 말일 듯합니다. 전국체전 참가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그의 매력에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92회 전국체전 결과 보고=

10월 6일 입장식 >>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단복, 팜복, 추리닝, TEAM BAG, 운동화를 이렇게나 FASHION 감각 두둑이 넣어서 제작해 주신 덕분에 인도네시아 선수·임원 복장이 가장 멋있었다는 것 TV 통해서 보셨지요? 이명박 대통령의 환한 웃음도 보셨을 겁니다. 상의의 붉은색은 인도네시아를, 아래의 흰 바지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단은 40년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의 뜨거운 후원과 응원을 업고 10/13-17일 모두 무사히 경기를 치르고, 처녀 출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분과별 성과

- 1. 탁구 : (담당 홍기중 부회장)
 권장명, 황길복 선수
 - 50대의 인간승리- 남·녀 두 명의 출전 선수 각자의 목에 은메달을 걸었습니다.

* 권장명 선수(56세) : 먼저 권장명 선수에게 경의를 올립니다. 그저 탁구를 좋아하는 사회 체육인으로서 수년전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50대 직장인입니다. 그는 병실

에서 “살아야한다, 이겨내어야만 한다” 다짐하며 매일같이 운동으로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진정한 인간승리의 표본입니다.

탁구를 좋아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나는 체력을 키워야한다” 는 신념으로 운동에 더욱 혼신을 바치면서 새로운 사업(플라스틱 조형물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선수. 7월 탁구 선발전에서 금년 전국체전 남자 탁구선수로 선발된 이후, 권 선수의 노력은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나를 바라볼 인도네시아 교민분들을 생각하면 암치료를 받을 여유를 부릴 수 없었다는 권 선수. 또 열심히 운동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지내다보면 암 4기라는 암울한 현실도 잊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 한 몸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체전에 참가하여, 암에 걸린 다른 환자분들과 병마에 시달리는 주위 분들께 운동으로 “암도 물리칠 수 있다는 의지” 를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교민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며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 황길복 선수(53세) : 실업 팀에서 선수 활동을 한 이후 평범한 주부로서, 깔리만탄에서 생활하면서 주위 분들과 한 번씩 탁구를 즐기던 중, 대한체육회인니지회가 결성되어 탁구선발전이 있다는 소식 접했습니다,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 라고 생각하면서, 젊은 선수들과 대결을 무릅쓰고 출전권을 따낸 선수. 7월 JIKS강당에서 열린 탁구 선발전에서 금년의 출전 선수로 선발된 뒤에는 자카르타에 체류하면서 인도네시아 탁구 대표선수들을 찾아다니며 옛 기량을 되찾기 시작. “탁구를 하는 근육과 설거지하는 근육이 다르다” 는 얘기를 하며 강훈을 거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전을 위해 먼저 한국으로 출발, 한 달간 옛 동료·선배들을 찾아 훈련 파트너 요청 및 코치를 강도 높게 받았을 정도로 열정을 보였습니다. 무리한 훈련으로 체전 뒤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서 교민들의 얼굴을 대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는 무서울 정도의 강인한 정신력. 아마 선수가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중도포기를 했을 것이라는 황 선수는, 몽은 어디가 나빠졌는지 체전 중에도 계속 가라앉기만 하는 가운데도 “눈을 감으면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얼굴이 떠올라, 어려움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다”

는 강인한 선수입니다. 그간 쌓인 피로와 정신적인 압박으로 병원 진료를 위해 아직 서울에 계신다는 황길복 선수를 위해 큰 박수 보냅니다. 뒷바라지 하신 홍기중 부회장, 최재혁 이사님도 큰 수고하셨습니다.

2. 테니스 : (담당 안재완 부회장) 현상범, 마승욱, 김철수, 설혜선, 금동자, 김현숙 선수



* 김현숙 선수(55세) : 테니스 여자단식 은메달. 타향살이 30년 서러움을 테니스로 풀어왔다는 사회체육인. 남편이신 ‘일미식품’ 유00 님은 경북대학교 졸업 후 UN 잠업 분과에서 근무하던 중 스리랑카, 콜롬비아에서 근무를 마치고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과 외로움 달래려고 부인이신 김현숙 선수에게 테니스를 가르쳤습니다. 주위에 함께 운동할 선수 아닌 선수조차 없는 환경에서 “그저 좋아하는 운동했을 뿐인데 오늘 이런 좋은 결과” 를 가져온 데는 부군이시자 혹독한 지도자 유 사장님과 수까부미의 전 교민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영광은 함께 테니스 선수로 선발된 동료 선수, 임원진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 이라고 다소곳이 말씀하시는 소녀 같은 성품의 주부선수가 그 힘든 테니스 종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니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 3. 축구 :** 선수 (담당 이광희 부회장)
- 4. 볼링 :** 선수 (담당 김송정 부회장)
- 5. 골프 :** 선수 (담당 한현봉 부회장)

평균 나이 47세, 진정한 아마추어 선수들. 필필 뛰는 20대와 싸우는 우리 선수들, 그러나 그들 역시 20대 못지않았습니다. 누가 그들을 두고 나이 많은 인도네시아 선수 팀이 왔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대들은 진정한 스포츠맨이자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 선수단은 기 한 번 죽는 일 없이 당당히 싸웠습니



다. 우리는 젊으되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0대의 기백으로 싸웠고, 그 정신만은 운동장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젊은 상대팀의 뛰어난 순발력과 조직력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아 돌아왔습니다. 다음 체전에서 우리 축구팀의 활약에 눈이 휘둥그레질 관중들의 표정을 상상하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 정말 건투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메달을 획득하진 못하였지만 불같은 노력과 열정으로 분투한 볼링, 골프 선수단에도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93회 대구 전국체전을 준비하며=

우린 밀리지 않았습니 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온 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열정 어린 훈련과 빈틈없는 준비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92회 전국체전을 막 마친 지금 내일을 다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의 93회 전국체전을, 나아가 몇 년 뒤에 열릴 또 다른 전국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영연 회장, 김희익 사무총장의 재임중, 탁월한 지도력과 그 화합으로 재인도네시아체육회가 우승배를 들고 수카르노 하따공항에서 해산식을 하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건강을 지키는 생활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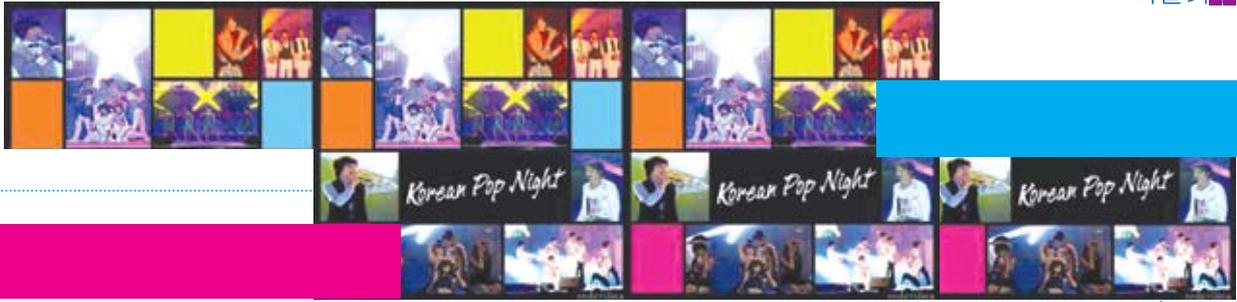
언제부터인가 “9988234”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이곳저곳서 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짝 저 세상으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쉬운 일입니까?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들은 죽기 전 거의 11년을

병마에 시달리다가가 운명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70-80세 이후 스스로 생활에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젊은 노인’ 은 얼마나 될까요? 9988만 출창 외친다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호로 표현되는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이루려면 꼭 그만큼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왔던 우리 체전 선수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체전에 참여하고 또 땀 흘려 훈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이 모여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운동을 즐기고, 또 그를 통해 이웃과의 따뜻하고 즐거운 교류가 더욱 많이 늘어나기 바라며, 아울러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가 교민사회 안에서 더욱 발전하고 교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이루는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 10월





인도네시아와 안류 - 2 한국대중가요



신영덕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학과 객원교수)

한국의 대중가요(K-POP)는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알려졌다. 이후 한국의 대중가요는 한국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Arirang TV와 KBS World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들이 한국 대중가요의 소개에 특히 큰 역할을 했다. 한국 대중가요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는 <팝스 인 서울>과 <쇼비즈 엑스트라> <더 엠 웨이브> 등 Arirang TV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대중가요의 통로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젊은 층의 반 이상은 한국 대중가요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대중가요의 인기는 현재 '열풍'으로 묘사될 정도이다. 다음 기사는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의 최근 반응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한국 가수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샤 라흐만티(24)는 “좋아하는 신화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 2년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리랑TV 인도네시아 팬클럽 회장 프랜시카 드위 벨라니(25)는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본 한국 뉴스는 정치적 갈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 음악을 좋아하고 한국을 방문해 보니 한국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안정된

서울 출생
1976 공군사관학교 입학
1987 서울대 국문과 석사학위
1994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 취득
일본 쓰쿠바대학 연구교수(전쟁문학 전공)
저서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전쟁과 소설』
공저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나라였다”고 하였다. 또 TVRI의 아흐마드 자카리아 PD는 “인도네시아 젊은층의 반 이상은 K-POP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는 외국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라며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이를 계기로 양국이 대중문화를 뛰어넘어 근본적인 문화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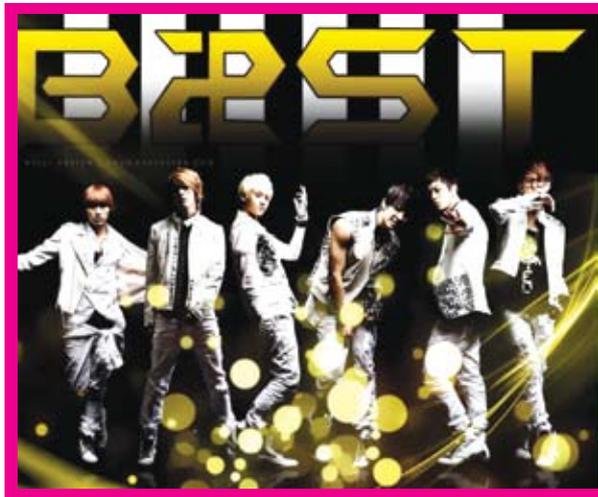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 간 교류행사 중 하나로 2010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스나얀 실내 테니스경기장에서 열린 ‘한·인니 우정 나눔 콘서트’는 2,500개의 관람석이 현지인들과 한국 교민들로 꽉 차는 등 큰 성황을 이뤘다. 인도네시아의 인기 가수뿐 아니라 한국의 샤이니, 손호영, 구준엽, 나옴 등이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K-POP(한국 가요)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이 몰렸다. 이 행사를 주관한 한국의 국제방송 아리랑TV가

2,500석의 입장권을 배포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진행한 이벤트에는 6만 여 명이나 참가했다. 공연 시작 전 대형 화면을 통해 동방신기, 샤이니, 소녀시대, 비, 슈퍼주니어, 2NE1, 원더걸스 등의 뮤직비디오가 상영되자 관람객들은 노래의 후렴구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슈퍼주니어와 샤이니의 인기가 특히 높다. 이날 공연은 아리랑TV를 통해 전 세계 188개국에, 인도네시아 국영방송 TVRI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방송되었다. K-POP의 팬인 피타(31)는 “한국 방송을 보면서 처음엔 그룹 신화를 좋아하다가 샤이니, 2PM, 빅뱅 등 다른 한국 가수들의 노래도 찾아보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음악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드라마에서 K-POP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웨스트라이프,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즈 등 보이밴드의 인기가 높는데 인도네시아의 보이밴드는 없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보이밴드인 동방신기, 샤이니 등의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현지 아리랑TV 팬클럽 회원 650명도 입장권을 받아 공연을 관람했다. 이들 중 6명은 두 달 전 한국을 방문해 아리랑TV를 견학하고 슈퍼주니어, 카라 등의 공연을 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거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K-POP 공연을 보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라자 나디리라(21)는 “나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고 왔고, 여동생과 친구들은 태국, 홍콩 등에서 한국 가수들의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봤다”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슈퍼주니어 등이 콘서트를 꼭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의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한국 대중가요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에 의해 사랑받고 있다는 것, 둘째, 젊은이들은 한국 대중가요를 좋아하다가 한국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셋째, 인도네시아에는 아직까지 한국 가수들의 현지 공연이 없기 때문에 공연을 보기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가 오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등이다.

한국 드라마가 여성 특히 주부들에 의해 사랑받고 있다면, 한국 대중가요는 주로 젊은이들에 의해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현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중가요를 들으며 즐기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을 공유하기도 하고, 음악 CD를 구입하거나 게임 등을 통해서 듣기도 한다. 물론 한국 대중음악이 젊은이들만의 소유물은 아니다. 한국 대중가요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TV나 쇼핑몰에서는 심심치 않게 한국 대중가요를 들려주고 있다. 다음 글은 최근 인도네시아 쇼핑몰의 한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지난달(2009년 12월)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형마트 매크로(Makro) 파사르르보(Pasarrebo) 점. 가무잡잡한 피부의 현지 여성 점원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국산 굴과 감을 팔고 있었다. 매장 스피커에서는 인기그룹 소녀시대의 히트곡 ‘지(Gee)’ 등 한국 대중가요가 흘러나왔다.

2010년 9월 16일, 인도네시아 대학교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한국 대중가요가 좋은 이유는 남자 가수의 외모와 춤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물론 이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는 여학생이었다. 일부 학생은 한국 대중가요가 미국의 대중가요와 비슷해서 익숙하다는 느낌을 주어서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대중가요의 가사 내용에 대해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가사 내용이 좋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퇴폐적이고 비극적인 내용의 가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학생도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가요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의하였다.

한국 대중가요가 인도네시아에서 차지하는 인기의 정도는 팬클럽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6월 현재 파악된 한국 가수의 팬클럽 수는 모

두 50여개이며, 이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가수의 팬클럽 회원이 모두 몇 명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가입해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팬클럽의 활동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 이들은 주로 'Gathering' 이란 모임을 통해 한국 가수와 배우에 대한 비디오를 같이 보고, 게임도 하며, 그들의 '아이돌' 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 그리고 이들은 'Gathering' 을 통해 한국 가수와 배우에 관한 물건 즉 부채, 티셔츠, DVD, 기념품 등을 팔고 산다.

2007년 한국에서 만든 'ELF' 라는 슈퍼주니어 팬클럽을 예로 들고자 한다. 'ELF' 란 'Ever-lasting Friends' 란 뜻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슈퍼주니어를 매우 좋아해서 인도네시아에 슈퍼주니어 팬클럽을 만들었다. 인도네시아의 슈퍼주니어 팬클럽 회원 수는 6,395명 정도이다. 이들은 같은 취미와 뜻을 가진 회원들이기에 서로 잘 알고 지낸다. 이 'Gathering' 의 목적은 슈퍼주니어를 응원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회원들끼리 친교하면서 슈퍼주니어에 대한 새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다. 이들은 'Gathering' 을 자주 개최하여 슈퍼주니어의 비디오를 같이 보고 게임을 한다. 그리고 이들은 슈퍼주니어에 관한 물건들을 슈퍼주니어를 매우 좋아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한류와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블로그나 웹사이트 역시 한국 가수에 대해 알려준다. 블로그나 웹사이트 내용은 한국 가수에 관한 소문과 새 정보, 생활 등을 소개하고 있어 그 자체가 팬클럽이다. BoA-Indo란 웹사이트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BoA의 팬을 위해 만든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 BoA 팬들은 BoA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참고로 BoA의 팬 수는 1,991명 정도이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가요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한류 스타들의 현지 공연은 매우 적은 편이다. 2009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가수이자 배우인 비(본명 정지훈)의 공연을 주관하였던 W프로덕션의 선 수드위짚모노(35) 대표는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V 드라마나 연예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들이 한류 스타들을 많이 소개해 인도네시아 젊은 층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작 한류 스타의 공연은 많지 않아 한류가 확산되지 않고 있으므로,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지 공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귀기울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지만 사정으로 필자가 논문에서 밝힌 참고목록이나 주석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은 '한류의 영향과 인도네시아 한사모' 가 이어집니다. -편집자-

전시회 안내

제7회 자필묵연전 일상에서 가꾼 필묵

풍요롭지만 허허로운 물질, 편리하지만 빠르기만을 강조하는 디지털시대를 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붓끝따라 퍼지는 묵향을 즐길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부디 오시어 필묵을 통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 2011. 11. 24. (16:00) ~ 11. 28.

장소 : 한국문화원
(Equity Tower 17층, 021-2903-5650)

출품 : 인재 손인식 과 29인의 작품



NILAI KEBAIKAN DALAM IBADAH HAJI

Yuni Sugandini

하지 예배의 가치

Menunaikan ibadah haji merupakan salah satu dari Rukun Islam (The Pillars of Islam) yang wajib dilakukan oleh umat muslim yang telah mampu secara mental dan spiritual (fisik, material, dan keilmuan) dengan berkunjung dan melaksanakan beberapa ritual ibadah di beberapa tempat di Arab Saudi pada suatu waktu yang dikenal sebagai musim haji (bulan Zulhijah).

Rangkaian ibadah haji memiliki beberapa rangkaian ritual simbolik untuk memenuhi syarat sahnya, yang tentunya mengandung makna filosofis di masing-masing bagiannya.

Pertama berpakaian Ihram yaitu dua helai pakaian berwarna putih sebagai simbol kesucian dan egalitarianisme bahwa manusia tidak dipandang dari pangkat, kedudukan dan superioritas lainnya, melainkan kadar ketaqwaan kepada Allah (Tuhan).

Kedua Thawaf, yaitu ritual mengelilingi Ka'bah yang merupakan bangunan suci di Mekkah sebanyak tujuh kali dengan mengucapkan zikir dan doa yang mengandung makna bahwa sebagai manusia kita harus selalu bergerak (berusaha) dan berdoa secara seimbang serta bersikap optimis untuk mendapatkan kehidupan yang lebih ba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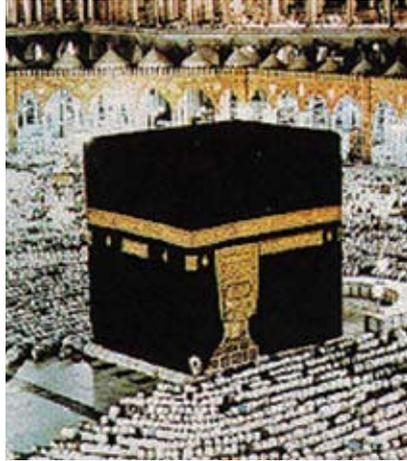
Ketiga Wukuf, yang merupakan kegiatan utama dalam ibadah haji. Cara pelaksanaan ibadah wukuf ini adalah dengan berdiam diri dan berdoa di padang luas (Arafah) di sebelah

timur luar kota Mekkah pada siang hari sebagai sarana untuk berkontemplasi atas apa yang telah dilakukan selama hidup, mengakui dosa dengan jujur dan ikhlas tanpa kesombongan kepada Allah.

Keempat melempar Jumrah di Mina. Ritual ini berupa kegiatan melempar batu-batu kecil ke sebuah tugu yang berdiri tegak sebagai simbol permusuhan terhadap setan dan iblis. Secara substansi, hal ini dapat berarti sebagai komitmen seorang muslim untuk membebaskan diri dari nafsu setan dan orientasi kejahatan yang ada di dalam dirinya.

Dan yang kelima adalah Sa'i, kegiatan ini dilakukan dengan berjalan kaki atau berlari-lari kecil tujuh kali dari Bukit Shafa ke Bukit Marwah dan sebaliknya. Nilai filosofis yang terkandung adalah sebuah pengorbanan dan dedikasi total untuk mencapai kebahagiaan hakiki yaitu kehidupan yang diberkahi sesuai dengan perintah Allah.

Ritual-ritual tersebut merupakan ritual yang wajib dilaksanakan selain tentunya banyak aktifitas pendukung yang dilakukan pada saat berhaji. Tetapi lebih dari itu, nilai yang paling utama adalah saat seorang muslim telah berhasil menjadi haji yang Mabruur yaitu seorang yang tidak hanya menjalankan ritual ibadah secara simbolik



지난 9월에는 인니독립기념일, 10월에는 르바란의 의미를 인니 젊은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무슬림의 가장 큰 의식인 하지 예배에 대한 글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읽는 가운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편집자 -

saja, melainkan sepulang dari menunaikan ibadah haji menunjukkan komitmen dan solidaritas sosial yang tinggi yaitu dengan selain memberikan kebaikan bagi dirinya tentunya melakukan amalan baik yang membawa manfaat kepada orang-orang yang ada di sekitarnya.

하지 예식은 순례의 계절로 알려진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몇 곳에서 의식을 행하고 방문을 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슬람교도의 의무로써 이슬람의 기둥을 이루는 것들 중 하나이다.

하지 예식은 각각의 부분에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유효한 요건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종교적인 상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Ihram 복장, 신(Allah)께 헌신하는 수준 외에 인간적인 지위나 계급, 다른 우월한 것들로부터의 평등과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두 겹으로 입는 것이다.

둘째, Thawaf, 즉 메카의 신성한 카바(Ka'bah)를 내적평온과 낙관적인 태도로, 우리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한다는 뜻을 담은 참배와 기도로 일곱 번 도는 의식이다.

셋째, Wukuf, 이것은 매일 정오에, 신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동안 행한

일들을 심사숙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카의 동쪽(Arafah)을 향해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넷째, Mina에 Jumrah를 던진다. 이 의식은 사탄과 악마에 대한 적의의 상징으로 세워진 건조물을 향해 작은 돌들을 던지는 것이다. 이 행위는 자기 안에 있는 범죄성과 죄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무슬림들의 대체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Sa' i, 이것은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Bukit Shafa ke Bukit Marwah)을 작은 발걸음으로 7차례 왕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철학적 가치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즉 신의 축복 받은 삶을 살고자 하는 희생과 헌신이다.

언급된 의식들은 하지순례에 행해지는 많은 지원 활동 외에 추가된 의무적인 의식이다.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무슬림에 의해 행해진 상징적 의식이 아니라 이미 순례의 결실을 얻은 한 사람의 무슬림 Mabrur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 하지순례에서 돌아와 헌신과 높은 공동체의 결속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선행 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재



건강하게 삽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해요!!

박진원 / 아름다운병원 원장

최 근 65세가 넘는 나이에도 스트레칭 하는, 힘든 산악자전거를 자유자재로 타는 사람, 하루에 18홀을 7일간 계속 골프 하는 나이에 비해 젊은 운동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근처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떨어져 전체적인 운동능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나이보다 젊은 운동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멘델스존은 38세, 슈베르트 31세, 쇼팽 39세, 모차르트 35세, 반고호 37세, 모딜리아니 36세등,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주로 단명했지만, 피카소는 91년 4개월을 살고 사망하기 전까지 평소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즐겼습니다.

한편 기네스 협회에 따르면 115세 이상이라는 사람들의 주장들 중 99%가 거짓이거나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습디만, 122세에 사망한 장 깔망은 현재까지 기록으로 가장 오래 살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인물로 최고 장수인이지만 술, 담배도 하였고, 초콜릿과 포도주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성공 노화인’ 이라고 부르는데, 100세 이상을 산 ‘백세인’ 을 포함, 80세 이후에도 마라톤이나 등반을 즐기거나 피카소같이 평생을 젊게 산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교통사고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같은 나이에 더 젊게 보이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살며, 나이가 들어서도 생산적인 삶을 살았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전인자 ; ‘백세인 연구’ 를 하는 연구진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백세인 들도 술, 담배를 하고 운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꽤있어, 예상과는 달리 ‘건강생활 습관’ 이 일반인들과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최근에는 유전자로 밝혀지고 있는데, 백세

까지 사는 데는 타고난 유전자의 도움이 약 2% 정도 있다고 합니다. 백세를 산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해도 오래 산 건 술, 담배가 해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타고난 유전자가 좋아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 ; 금연, 비만, 수면, 스트레스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생활 습관’ 으로 유전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 합니다. 삶의 질이나 수명을 결정 하는데 70%는 유전자가 아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유전자를 받은 사람 일수록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나쁜 유전자를 받은 사람일수록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단명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 일수록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실제 최근 평균 수명의 변화를 살펴보면 90%의 현대인들은 좋은 생활습관, 즉 담배를 하지 않고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며, 규칙적이며 적절한 수면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운동하고,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경우 90세까지는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울증, 알코올 중독증 등 피해야 ;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이 두 가지에 걸리게 되면 삶이 바로 추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젊은 청춘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들 입니다. 지금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현대 의학의 도움만 조금 빌린다면 90세까지는 행복하고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되면 적어도 12년의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효과는 심폐체력, 근력, 유연성, 지구력 증진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잘 적응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1개월째, 가벼운 운동

30분씩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첫 1개월 동안 몸이 운동에 익숙해지도록 활동량을 늘립니다. 걷기, 산책하기, 쇼핑하기, 물건 들기 등 특정 운동에 얽매이지 말고 매일 30분 가량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활동량을 늘린다. 땀이 나지 않더라도 약 40%의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만 꾸준히 해도 약 3.2년 가량 젊어진다고 합니다.

2개월째, 근력, 유연성운동

10분씩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쉬운 운동 능력이 바로 근력과 유연성입니다. 특히 20~40대는 필히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한 운동 능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2개월째는 1개월째의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일주일에 3회정도아령, 바벨, 스트레칭 등의 근력, 유연성 운동을 10분씩 시행합니다. 이 운동은 활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꾸준히 할 경우 1.8년정도 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개월째, 지구력 운동을 20분씩

본격적으로 운동능력이 궤도에 오른 상태에서는 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운동이라 하면 런닝머신, 베드민턴, 스쿼시, 달리기 등의 지구력 운동부터 시작하여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계를 밟아 운동을 일상화 시킨 후에 지구력 운동을 시행하면 운동 효과를 최대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지구력 운동은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조깅 등의 땀이 나는 운동을 20분 정도 시행하는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동맥, 폐 등의 심폐력이 강화되어 6.4년정도 젊게 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운동에 도움이 되는 약으로 코큐텐(CoQ10)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조효소로 운동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실제로 고강도의 달리

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코큐텐을 40일정도 복용한 결과 이전에 비해 운동 거리는 12.9%, 운동 시간은 7.9% 정도 강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운동 능력이 저하된 중년여성들에게 6개월간 코큐텐을 복용시킨 결과 근육대사가 촉진되어 운동 능력이 56%에서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큐텐은 에너지 대사 과정을 활성화시켜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과도한 운동으로 생길 수 있는 활성산소의 제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일본21”에서는 9개 분야에서 10년간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9개 분야는 영양, 운동, 휴양, 흡연, 알코올 등 생활습관요인과 치아건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습관 병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무, 이소, 삼다(一無, 二少, 三多)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무란 금연을 말한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를 삼악(三惡)으로 규정하여 흡연의 해악성을 알리고, 특히 청소년 흡연율을 0%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소란 소식(小食)과 소주(少酒)를 뜻한다.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은 기본적으로 식생활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어 주식 외에도, 국, 한그릇과 세가지 채소, 과일과 유제품을 같이 식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의 섭취를 권장하고. 또한 백미(白米), 흰소금, 흰설탕을 삼백(三白)이라 하여 가능한 적게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삼다는 많이 움직이고(다동:多動), 많이 쉬고(다휴:多休), 많은 사람과 사물을 접함(다접:多接) 뜻한다. 여기서 다접이란 활동적이고 창조적 생활을 통해 젊은 기분을 유지하여 건강장수(健康長壽)를 실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성과 여성경년기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별과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김성월 / 수필가, 방송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까스뿌한 족 (SUKU KASEPUHAN)-1

서 부자바에 가면 할리문 국립공원(Taman Nasional Halimun)이 있다. 할리문은 순다어로 ‘안개’라는 뜻이며 공원 안에 까스뿌한족이 살고 있다. 까스뿌한족은 643년의 전통과 2만8천명의 부족들이 세 곳에 나뉘어 살고 있다. 까스뿌한(Kasepuhan)족은 밭농사는 뚝뚝사리(Tumpang sari) 순환농법을 하며 논농사로는 2-3모작이 아닌 1모작을 한다. 1모작을 주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는 기간이 일 년에 한번이므로 또 쌀을 팔면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그건 생명을 파는 것과 같다. 1모작을 어길시 부족에서 퇴출당하며 모내기나 추수는 부족들이 공동 작업을 한다. 1모작 추수한 논은 비워두기도 하고 물고기를 기르기도 한다.

금붕어 먹다가 고민에 빠진 나

까스뿌한족들과 함께 둘러 앉아 저녁식사를 했다. 반찬은 초록나물과 알록달록한 금붕어 찜과 튀김과 붉은삼벌들이 출출한 나의 구미를 당겼다. 가장 먼저 잘 튀겨진 금붕어를 포크로 집어 들었다. 옆구리의 생선살이 고소하며 연한 감칠맛이었다. 족장부인은 처음 보는 초록나물이 물에서 사는 풀인데 여자의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주고 자

신도 즐긴다며 자꾸 권했다. 남자들은 정력에 좋다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듯이 여자들 또한 미용에 좋다면 웬만(?)한 건 다 먹을 각오가 되어 있다. 나물을 집어 들었다. 입안에서 물컹거리며 씹히는 느낌과 맛은 내가 원했던 맛이 아니었기에 나는 금붕어로 눈길을 갔다. 금붕어가 담긴 접시로 포크를 내밀자 족장은 내가 금붕어를 좋아한다고 접시를 내 앞으로 밀어다 주었고 나는 포크로 집어 입술 가까이 가져왔는데 갑자기 오늘 마을에서의 일들이 떠올랐다. 순간 나는 고민에 빠졌다. 이걸 먹어야하나 말아야하나.

내가 머물던 곳은 자바서부 수까부미 씨솔록(Cisolok Sukabumi) 시나르 러스미(Sinar Resmi) 마을이다. 어제 늦게 도착하였으며 하룻밤을 잤다. 밤공기가 싸늘하여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 때문에 양쪽 어깨가 시렸다. 오돌오돌 떨다가 두꺼운 옷을 꺼입고 담요를 두 겹으로 덮고 겨우 잠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머리맡에서 수탉이 뉘를 쳤다. 수탉의 성대가 얼마나 고음이며 맑고 강한지 계속 울어대는데 아니 일어나고는 도저히 배길 재간이 없었다. 목청 좋은 수탉덕분에 이른 아침 동네를 산책하게 되었다. 좁다란 마을길에는 운동화와 책가방들이 걸어가

고 있었다. 뒤따라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망태기와 곡괭이를 멘 노인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기에 나는 노인을 따라갔다. 골목길을 접어 돌아보니 빠른 걸음의 노인이 저만치 가고 있었고 대나무 울타리에 있는 한 꼬마 보였다. 꼬마가 불일을 보는 곳은 물고기를 키우는 논이었다. 까스뿌한족들은 눈에 물을 가두어 물고기를 길렀다. 1모작 후 논을 쉬게 해 주며 눈에 물고기를 기르면 눈에 비타민도 공급해서 이듬해 벼 추수할 때 풍성한 거둔다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논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손바닥만한 눈에 물고기를 길렀다. 눈에 물고기를 기르는 일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물고기를 기르는 논 모서리에는 화장실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다. 날마다 그곳에서 샤워하고 불일을 보고 물고기들은 사람들의 배설물을 받아먹고 자랐다.

이웃마을 찹따물리야(Ciptamuliya)에 물고기를 많이 기르는 집이 있다가에 찾아 갔다. 인터뷰하려고 아주머니 허리춤에 마이크를 채워놓고 화장실을 다녀왔다. 화장실이라고 안내해 준 곳 아래를 내려다보니 물고기들이 노닐고 있었다. 아침에 본 꼬마 녀석이 떠올랐다.

왜, 하필 배설물로 물고기를 기르는지 이유를 물어보려고 마이크 채워 준 아주머니를 불렀다. 아무리 불러도 오지않아 가 봤더니 아주머니의 딸이 하는 말,

“엄마가 허리에 채워준 이걸(네모난 바이러스)를 보고 움직이면 터지는 폭탄인 줄 알고 꿈쩍도 않고 저렇게 앉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아주머니의 딸아이와 나 제작진은 한바탕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참 웃고 나니 마음이 유쾌했다. 나는 이래서 오지를 찾아다니는지 모르겠다.

까스뿌한족들이 왜 물고기에 화장실 물을 사용하는지 살짝 물어봤더니 산아래 눈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물을 대어준다고 했다. 어떤 집은 자신들은 절대 인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양어장에 따라가 봤더니 염소배설물로 키우고 있었다. 그렇다면 까스뿌한족들이 이렇게 키운 물고기를 어떻게 할까? 일부는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이 직접 반찬으로 해 먹는다고 했다.

제작진이 옆에서 “밥 먹다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하며 나를 툭 건드렸다. 그 바람에 포크에 있던 금붕어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감사하게도 나는 금붕어를 먹지 않았다. 그곳에 머무는 보름동안 식사 때마다 금붕어가 올라왔다. 그러나 내가 먹기 힘들어 했던 금붕어, 가난해서 못사먹는다는 인터뷰를 들으면서 나는 반성과 동시에 내 생활에 참으로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꼈다. ■■■





엘콘도 파사(EI Condor Pasa)!

박관구 / 자카르타 안디익회 목사

우츠프라 카치아란 식물이 있다. 깊은 밀림, 음지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식물이다. 그런데 이 식물은 누군가가 살짝이라도 몸체를 건드리면 그 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다. 그래서 학자들은 결벽증이 너무 심해 아무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식물로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은 처음 자신을 만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면 오히려 오래 사는 것으로 최근 밝혀진 것이다. 실상인 즉, 이 식물은 자신을 처음 만져준 그 손길이 그리워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갔던 것이다.

매미! 보통 5년 11개월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낸다. 그 후 땅 위로 나와 나무등걸을 타고 오르다가 5번째 허물을 벗고 비로소 매미가 된다. 그러나 6년 세월의 고통과 인내 끝에 겨우 매미가 되었건만, 매미는 4주가 지나면 죽음을 맞게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무에 붙어 노래 부르는 매미를 게으름의 표본인 것처럼! 그러나 알아야 한다. 매미의 이 노래는 4주로 제한된 생존의 기한 안에 암컷을 불러 종족을 이어가려는 처절한 몸짓인 것을! 짝을 부르는 그 노래 소리 때문에 새나 다른 곤충의 먹이가 될 위험이 있음에도 매미는 그리도 애절하게 울고 있는 것이다.

까치 한 마리가 길 위에 죽어 있다. 그 둘레에 모여 있던 너댓 마리의 까치가 부리로 동료의 시신을 가볍게 쪼아댄다. 그러더니 모두 숲으로 날아가 지푸라기를 물고와 시체를 덮어준다. 그 후 이들은 동료의 무덤(?)을 한참을 바라보며 묵념하듯 서 있다가 한 마리 한 마리 하늘로 사라져갔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팀의 보고내용이다. 시험 조사선을 타고 울산-포항간 해역을 순시하던 중, 경주 감포-울산 정자 앞바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죽어가고 있는 한 마리의 참돌고래를 4~5 마리의 동료고래들이 수면위로 밀어 올려 숨을 쉬도록 해주는 장면이었다. 이들은 무려 2시간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했으며, 당시 조사선에 타고 있던 연구원들이 2~3m 까지 접근해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의 가슴 뭉클한 동료애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도 마침

내 숨이 끊어지고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자 동료 고래들은 주변을 두어 바퀴 천천히 유영한 후 먼 바다로 사라져 갔다.

전남 진도에 백구라는 진돗개가 있었다. 이 개는 주인 박완수 씨와 단둘이 의지하고 살았다. 그러던 중 박씨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자, 백구는 주인의 주검이 발견되어 장례절차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인 곁을 지켰다. 그 후 운구 차가 와서 박씨의 시신을 싣고 나가자 마을 어귀까지 따라가며 슬피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백구는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인이 떠난 침대 곁에서 자리를 지켰다. 신통히 여긴 진돗개 시험연구소에서 백구를 데려다 키우고 있지만 지금껏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7년 전 경북 상주에서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꽃상여를 만들어 “누령이”라는 죽은 소의 장례를 치렀다. 그 후 상주 박물관 옆 시유지에 누령이를 묻고는 비석까지 세웠다. 상주시는 이에 더하여 의우총(義牛塚)을 만들기로 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누령이의 행적과 이야기를 길이 전하기 위함이란. 어찌된 일인가? 경북 예천에서 팔려와 한 할머니의 집에서 자라던 누령이가 어느 날 고삐를 끊고는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온 동네를 뒤진 끝에 집에서 수km 나 떨어진 산 중턱에서 누령이를 찾아냈다. 누령이가 발견된 곳은 살아생전에 누령이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가며 먹이를 주다가 사흘 전 숨진 할머니의 묘소였다. 발견 당시 누령이는 묘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겨우 달래서 돌아오는 길에서도 뿌리치고 산으로 돌아가려 하더니 여의치않자, 이제는 할머니 빈소로 들어가 떡 하니 버티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누령이는 할머니를 그리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 것이다.

이러한 식물과 곤충, 조류와 어류는 물론 개나 소 같은 동물의 세계를 살펴보다 보면 “인간이 무슨 근거로 동식물에 대해 우월성을 주장하는가?” 하는 어느 학자의 항변이 공감으로 다가온다. 그렇다. 사람이 이보다 나은 게 솔직히 무엇인가? 오히려 지구상의 생명체중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잔혹한 존재가 아니던가?



엘콘도 파사(El Condor Pasa)! E!은 영어의 the 이고, Condor는 잉카인들이 신성시하는 새를 말하며, Pasa는 Pass를 의미한다. 사이먼과 가펩클이 불러 유명해 진 노래로, 원곡은 1913년 페루의 로블레스가 작곡했다. “철새는 날아가고” 라는 곡명으로 우리에게도 꽤 친숙한 노래이다. 그러나 이 노래의 배후에는 남미 잉카인들의 한없는 절망과 처연한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 사람을 속이는 법도 없었다. 비록 황금의 가치는 몰랐어도 그들은 소박하게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보듬으며 살았다. 그들은 건강했고 병이 없었으며 용기를 미덕으로 여기고 공동체에 헌신적이었다.

1533년 피사로 일행이 당시 잉카의 왕,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아 어마어마한 금을 빼앗은 후 처형한 것을 시작으로 스페인 군대의 살육과 약탈은 시작되었다. 그들은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로 진격하여 금이 아닌 것은 남김없이 파괴했다. 신전을 비롯한 여러 곳에 금으로 도금된 신상과 집기들은 모두 녹여 금막대기로 만들어 스페인으로 실어 날랐다. 스페인군대의 살육과 파괴를 견딜 수 없었던 잔여병력이 사크사이와만 요새로, 높은 산허리에 자리한 올란타이탐보로 계속 밀려가며 저항을 해보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스페인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던 잉카병사들은 마침내 비르카 밤바, 곧 잉카 최후의 숨겨진 도시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 400 년...

1911년, 하이만 빙엄이란 미국의 역사학자가 한 원주민 소년의 도움으로 해발 2,400m 의 울창한 숲에 숨겨져 있던 마추픽추를 발견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고대 잉카인들이 스페인 군대의 공격을 피해 험준한 안데스 산의 봉우리에 건설한 공중도시, 비르카 밤바였다. 후대의 탐험가들마저 설마 이처럼 깎아지른 절벽 위에 도시가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던 잉카 최후의 도시였다. 그러나 스페인군대를 피해 숨어 살았던 이곳 사람들은 병약한 가족들을 땅에 묻고 황급히 이 도시마저 떠나 버린다. 검은 손길의 위협이 거기까지 뻗었던 게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떠나간

것일까? 그 순박한 사람들을 대체 어디까지 내몰았던 것인가? 황금을 다 빼앗고도 모자라 절벽 위의 공중도시마저... 엘콘도 파사! 잉카인들의 비애가 서린 단어이다! 아니 역사상 인간의 잔혹함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은 단어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현대사회의 도처에서도 엘콘도 파사를 본다. 남편을 떠나가는 아내, 아내를 떠나가는 남편, 부모의 집을 나가는 자녀, 집을 꾸러 어디론가 옮겨가는 부모, 개발에 밀려 점점 변두리로 쫓겨나는 빈민, 기업형 수퍼에 밀려 문을 닫는 가게, 백화점에 밀려 쪼그라져 가는 재래상인, 대기업의 횡포에 밀려 견디질 못하고 폐업하는 중소기업... 가진자, 강한자에 쫓겨 외곽으로, 비르카 밤바로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엘콘도 파사들!

생자필멸, 회자정리 (生者必滅, 會者定離)라 했다.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생겨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있다. 그렇게 쫓아내지 않아도 사람은 때가 되면 떠나가게 마련이다. 사람아! 나무는 더불어 살아야 숲이 되고 산이 되는 법이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았기에 저렇게 큰 산을 이룬다! 바다는 한 줄기 물도 거부하지 않았기에 저렇게 품이 넉넉한 바다가 된 것이다! 사람도 더불어 살아야 인간인 것이고, 그래야 복이 오고, 좋은 세상이 온다! 하나님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133:1)” 라고 하셨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약한자, 가난한 자, 나와 다른 자를 보듬어 함께 살아갈 관용과 아량을 발휘할 수는 없을까?

떠나간 Condor 들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한 회사정리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사업이 여의치 못하여 한국인 사주가 인도네시아에서 바람처럼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오죽 힘들었으면 회사를 포기하고 도망까지 했겠는가 한인동포에게 동정이 가기도 하지만, 뒤에 남은 피해자들, 현지인 직원들, 납품업체들, 채권자들에게는 용서받기 힘든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사주의 야밤도주 사건 발생이 잦아지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전체 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야밤도주가 늘어나면 어느 회사의 누가 돈을 챙겨 야밤도주했다고 특정 회사 특정 개인을 지칭해서 욕하기보다는 어느 지역에서 사업하던 오랑 꼬레아(Orang Korea)가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많은 외상값을 떼먹고 도망했다고 오랑 꼬레아를 지칭하여 오랑 꼬레아를 욕할 수 있다. 오르데 바루(Orde Baru) 정권이 끝나기 직전인 1998년 5월 중순의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전국 대도시에서 발생했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끔찍한 집단 테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사업장과 주거지에 대한 방화, 약탈, 폭행, 부녀자들에 대한 성폭행,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집단 테러가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불쌍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외상값을 떼먹고 야밤도주하는 오랑 꼬레아가 늘어나고, 적법으로 위장한 오랑 꼬레아의 불법행위가 많아지고, 인도네시아의 정치가 불안해져서 공권력이 치안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수많은 외국인들과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재산을 뒤에 두고 인도네시아를 비상 탈출해야 했던 1998년 5월같은 비참한 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야밤도주는 분명히 특정 회사 특정 개인의 범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한인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으로 봐야할 것이다. 사업이 여의치 못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철수가 불가피한 회사는 야밤도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를 대충 정리하고 떠나기를 간곡하게 권유한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방법, 파산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법원에 파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법원에 파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봐서 셋이다. 첫째는 채무자 자신, 둘째는 채권자, 셋째는 관할 관공서이다.

1.1. 채무자 자신이 파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법에서 파산이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파산의 뜻과는 다르다. 법에서 의미하는 파산이란 법원의 판결로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자동으로 압류되며 관재인이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장악하고 감독판사의 감독 하에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일체의 과정을 파산이라고 한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선고 전까지 있었던 채무자에 대한 모든 소송의 당사자가 관재인으로 변하며 채무자는 수많은 채권자로부터 직접 시달리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파산선고를 청구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 100%가 직접 파산선고 청구를 결의하거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에서 파산선고 청구를 결의하는 방법이 있다. 파산선고 청구 안건 임시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총 발행주식의 3/4(75%) 참석에 참석한 주주의 3/4(75%)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서에 근거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상업법원에 파산선고를 청구한다.

1.2.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1.2.1. 금전대여 채권자, 물품 혹은 서비스 제공 채권자, 건설계약 채권자, 임대차 채권자, Lease 채권자, Factoring 채권자 등 모든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및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임금 채권자로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도 인도네시아 국내에 있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은 채무자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면, 한국에 있는 채권자가 인도네시아의 상업법원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다.

1.2.2.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여하한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파산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외국 회사가 인도네시아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재원, 지점 혹은 지사가 있으면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파산선고의 목적이 채권 회수이므로 인도네시아 국내에 채무자의 재산만 있으면 내국회사, 외국회사, 내국인, 외국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업법원을 통하여 채무자를 파산선고 시키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1.2.3. 채무자가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났을지라도 파산 선고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 건설시공업체가 납품 받은 물품 대를 갚지 않고 출국하거나, 현지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출국한 봉제업체에 대해서도 파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3. 관할 관공서가 파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1.3.1. 검찰이 파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가 공익에 불이익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상업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3.2. 중앙은행이 파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인 인도네시아은행만이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파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은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파산선고를 직접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중앙은행에 해당 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파산 선고 청구를 해 달라고 청원하고, 중앙은행이 판단하여 상업법원에 파산 선

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1.3.3.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원이 파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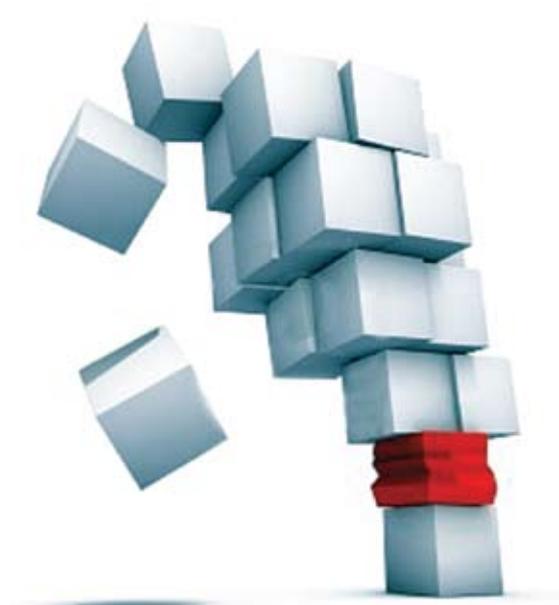
채무자가 증권회사, 증권시장회사, 은행어음 교환 및 보증기관 혹은 보관 및 해결기관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직접으로는 하지 못하며.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원만이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파산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다.

1.3.4. 재무부 장관이 파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 관리 단체 혹은 공익분야의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직접으로는 하지 못하며, 반드시 재무부 장관에게 청원하고 재무부 장관이 판단하여 파산 선고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2. 파산선고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는가?

파산선고 청구 관할 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는 일반법원이 아니고 상업법원이다. 자카르타, 수라바야, 마카사르, 메단 및 스마랑에 상업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3. 파산선고 청구 재판절차



- 3.1. 변호사에게 파산선고 청구 위임
- 3.2. 상업법원에 등록
- 3.3. 재판부 배정
- 3.4. 청구자 및 피청구자에게 법정출두 명령 송달
- 3.5. 채권자, 검찰, 중앙은행,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원 혹은 재무부 장관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법정 출두를 명해야 한다.
- 3.6. 채무자가 청구하거나 파산선고 조건에 확신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법정 출두를 명할 수 있다.
- 3.7. 심리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른다.

4. 파산선고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

- 4.1. 상업법원의 법정 판결시한은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이다.
- 4.2. 상업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한다. 항소등록시한은 상업법원 판결일로부터 8일 이내이다.
- 4.3. 대법원 법정 판결시한은 대법원 접수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이다.
- 4.4. 총 소요기간은 상업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장 60일, 상업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하는 경우에는 최장 128일 이내이다. 그러나 통상 상업법원은 법정 처리시한 60일을 지키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5. 파산선고 판결조건은 무엇인가?

5.1. 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하며, 두 채무 중에 한 채무가 이미 만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파산 선고 조건에 미달되나,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파산 선고를 청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매각하면, 원 채권자와 원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제이 채권자가 새로운 적법한 채권자가 되므로, 채권자의 수가 2명 이상이 되어 파산선고의 법정 조건을 충족시켜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채권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분할 양도하여, 채권자 수를 2명으로 만들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청구하면, 종전에는 채권자를 2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상업법원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파산선고 청구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고 있다.

5.2. 채권 존재 입증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려하지 말고 사전에 채권 존재를 확정시키고 파산선고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의 가액은 얼마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채권의 확정이 중요하다. 사례를 들어본다. A건설업체가 B섬유회사의 공장 건축을 수주하고 공장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B사는 건물의 여러 부분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고 일부 증축까지 주문하여 A사는 모든 공사를 성실하게 마쳐왔으나, B사가 건물의 변경 부분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과 증축비에 대한 지불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1년 이상을 미루자, A사는 B사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파산선고를 청구하였다. 심리과정에서 파산선고 피청구자인 B사는 건물의 부분 변경과 일부 증축을 부인하며 A사에 대하여 채무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 A사는 건물의 부분 변경과 일부 증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파산선고 청구는 기각을 당했다. 건물의 부분 변경과 일부 증축을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B사의 서면 오더 없이 구두 오더만 믿고 시공을 해서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파산선고 청구를 하기 전에 채권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6. 감독판사 임명

파산선고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의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를 파산선고 판결문에 감독판사로 임명한다. 감독판사의 임무는 전 파산 과정을 감독하는 일이다.

7. 관재인 임명

파산선고 판결문에 감독판사와 함께 관재인을 임명한다. 관재인은 관제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파산선고 청구자가 요청한 관제사를 재판부가 임명한다. 관제사의 기본 임무는 파산재산을 운영하거나 정리하여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는 일이며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7.1. 파산선고 판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국 단위 일간지와 관보에 파산선고 판결문을 공시하고 모든 채권 등록을 요청한다.
- 7.2.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 7.3. 채권등록을 받는다. 담보권 보유 채권자, 국세채권 보유 국세청, 관세청, 관세 채권 보유 관세청 및 임금채권 보유 직원도 채권을 관재인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는 파산재산 매각 대금에서 상환이 제외된다.
- 7.4. 등록된 채권의 적법 여부를 감독판사와 함께 결정한다.
- 7.5. 파산재산을 매각한다.
- 7.6. 파산재산 매각 대금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채무를 법정 순위에 따라 지불한다.
- 7.7. 관제업무가 종료되면 감독판사에게 관제업무 종료 보고를 한다.

8.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시행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시행은 파산선고일로부터 90일간 보류되며 90일이 지나면 담보권 보유자는 60일 이내에 담보권을 시행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담보권 시행을 하지 않으면 담보물 매각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간다.

9. 법원의 파산선고 판결의 법적인 결과

9.1.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 파

산이 선고된 회사의 이사회는 경영권 및 처분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감으로 관재인이 회사를 계속 경영할 것인지 조업을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순간부터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모든 현재의 재산 및 미래의 재산은 총체적인 압류 상태에 놓인다. 그러나 다음 재산은 압류에서 제외된다.

- 9.1.1. 직업 수행에 필요한 도구, 가족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침대를 포함한 가구, 의료 기구 및 30일 분 식량.
- 9.1.2. 감독판사가 정한 급여 및 년금
- 9.1.3. 법정 생계비
- 9.2. 채무자는 관재인이 회사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 거주지 제한 및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9.3. 채무자는 감독판사, 관재인 및 전체 채권자가 참석하는 채권확인회의에 참석하여 채권의 존재 유무, 적법 여부 및 가액 확인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 9.4. 배우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대 배우자에게도 자동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 9.5.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파산선고 순간부터 주주의 권리가 동결된다.
- 9.7. 파산이 선고된 주식회사의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은 이후 5년 동안 타 주식회사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피선거격을 상실한다.

10. 파산재산 처리

- 10.1. 관재인이 파산재산을 처리하며 처리는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감독판사의 경매 허가를 받아 재무부 산하 공매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를 한다. 관할 지방 일간지에 경매 공고를 해야 하며 경매 공고에 최저 매각가를 포함한 경매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 10.2. 경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경매, 3차 경매를 할 수 있으며 경매 최종 결정권은 관재인에게 있다.
- 10.3. 경매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감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재인이 수의 계약으로 파산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1. 채무 상황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알려드립니다

파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다. 지불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1.1. 관재인비
 - 11.2. 담보권 보유자
 - 11.3. 직원 급여
 - 11.4. 국세 및 관세
 - 11.5. 일반 채권자(납품업체, 용역업체 등)
- *관재인이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지불 후 잔액이 있으면 차 후순위자 순으로 지불한다.

12. 화의

- 12.1.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채권자회의에 화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2.2. 채권자회의에서 일반 채권자 1/2 이상 참석 및 참석 일반채권자 1/2 이상 찬성으로 화의를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 보유 채권자 및 우선순위 채권자는 화의 의결권이 없다.
- 12.3.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된 화의 결의는 재판부의 판결로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13. 복권

- 13.1.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로서 모든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한 채권자는 채권자로 인정받은 모든 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 13.2. 상업법원은 상기 신청서를 2개 전국 단위 일간지에 공시한다.
- 13.3.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부는 복권 판결을 하여 파산이 선고됐던 채무자의 법적 신분을 복권한다.

14. 파산선고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14.1.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가 됨으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일이 없어져 소송 시달림에서 벗어난다.
- 14.2. 채권자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산 매각대금으로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미수 채권은 파산선고 판결문에 근거하여 Write off(장부에서 삭제)시킬 수 있다.

한인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 한국업체 2곳에서 경영자가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지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한인사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업부장관 주재 회의를 소집, 한국대사관과 KOCHAM에 유감을 표하면서 도주한 기업인에 대한 제재조치 및 차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 야반도주와 같은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는 한국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에 큰 손상을 가져오며 현지 정부의 한인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초래하고 현지 은행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원성을 사게 되는 등 다른 한인기업과 교민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되며, 법적인 책임뿐 아니라 기업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날로 긴장되어가고 있고, 우리 한인사회는 명실상부한 인도네시아 최대의 외국인커뮤니티로서 현지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증대에 힘입어 앞으로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익과 교민사회 전체를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현지 파산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폐업하는 절차도 있사오니 KOCHAM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CHAM 사무국

전화 : (021)527-7539

팩스 : (021)5296-0586

이메일 : kocham@cbn.net.id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할 국적확인 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사항 ; 국외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되며 신고·신청을 하여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한 사람)

⇒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관에 신고

②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과 국적확인서류 (비자·단기체류증(KITAS)·장기체류증(KITAP) 중 어느 하나)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첨부한 국적확인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 신청

도박행위는 주재국에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최근 자카르타 근교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이 이국생활의 무료함을 달랜다며 놀이 삼아 카드놀이 (속칭 고스톱)를 하다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된 바 있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의하면 도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마약사범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활동이 엄격하게 제약 될 뿐만 아니라 법정형을 최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도박이라 해도 실제로 2년형이 선고되는 등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자국 기준으로 판돈의 규모가 작고 친구들과의 오락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현지의 처벌기준을 지나치기 쉬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도박의 판돈 규모 및 오락성 여부는 처벌수위에 별영향이 없다며 도박행위의 처벌에 대해 엄격한 인도네시아의 법령 및 문화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동포여러분께서는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관련 협조 안내문

우리 정부는 매년 재외공관 영사서비스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동 영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도조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교민/국민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와 실명을 제공받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우리 정부의 이메일을 통한 동 만족도 설문조사에 기꺼이 응해 주실 교민/국민들께서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실명을 우리 해당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관 민원실 방문 시 또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제공해 주시거나

공관 이메일(koremb_in@mofat.go.kr), 전화(021-2992-3030), Fax (021-2992-1700) 등을 통해 제공해 주십시오. 이메일과 실명 이외의 여타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민/국민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메일 주소와 실명은 영사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설문은 우리 공관의 개입 없이 응답자와 외교통상부 본부 간에 직접 진행되며 이에 따라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그 의미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닷새간의 미국 국민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귀국했다. 이번 방미기간에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파격적인 예우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다섯번째이자 13년만에 이뤄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45차례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미 합참의장 전용 작전상황실인 ‘탱크룸’에서 미군의 수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것은 외국정상으로서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자연 미국 현지에서도 이 대통령의 방미성과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타임스(WT)는 “세계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방문이었다.”며 “양국의 공동의 이익과 상호신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한미 FTA와 관련, 한미 양국의 경제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이 대통령의 방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외형적 환대가 아니라 ‘다원적 동맹’ 관계의 설정이라는 점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안보·군사동맹 중심이었던 한미관계를 경제동맹을 비롯한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이 더 큰 실질적 성과인 것이다. 물론 그 바탕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 한미 FTA 인해 이제 한미 양국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숙명적인 동반자 관계가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발효가 가시화된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경제 회복이 더딘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하는데도 한미 FTA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선점한 우리나라도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와 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에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미 FTA는 한국과 한국인, 한국제품에 대한 미국내 인지도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 동안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도 회사나 제품의 인지도가 떨어져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중소기업에게 한미 FTA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양국 정상은 또한 다원적 전략동맹에 걸맞게 리비아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및 안정화 지원협력사업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리비아와 중동의 민주화 정착이나 경제 재건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과 같은 사업에 우리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양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이나 스마트그리드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녹색성장협력을 이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언한 해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정치적 불안정 시기다. 이러한 때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고 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공조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로 이룩한 한미 양국간 다원적 전략동맹은 지난 60년간 대미 외교의 결정판이자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태평양 시대에 새로운 한미관계의 지평을 연 것이다. ●●

카다피 몰락의 교훈과 북한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10월20일(한국시각) 리비아 절대통치권자 카다피가 시민군에 의해 사살됨으로써 42년의 철권 독재권력이 지구상에서 또 사라졌다.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이른바 차스민 혁명의 불길의 중동을 휩쓸며 30년 독재의 이집트 무라바크 정권을 축출시켰으며 마침내 카다피의 사살로 리비아에서의 시민혁명도 성공하였다.

지난 2월 15일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벤가드에서 타오른 리비아 시민혁명이 8개월 걸친 카다피 친위군과의 내전 결과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에 의해 지도되는 시민군에 의해 종식되었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30년 독재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33년 독재의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에게 쏟아지고 있다. 현재 시리아와 예멘은 정권퇴진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유혈사태가 심화되어 독재정권의 축출이 그리 멀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다. 중동지역에서 불길처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차스민 혁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부자세습의 수령절대주의 폭압정권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북한에서 중동발 차스민혁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중동에서처럼 시위나 봉기가 일어나려면, 먼저 북한주민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즉 김정일 폭압정권에 대항할 시위나 봉기의 구심점 즉 주도세력이 형성되어야 하나,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서방세계와 대한민국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알게 하는 정보유입이 필요하다. 정보 유입이 가능해지면, 체제비교를 하게 되고 결국 북한주민의 눈과 마음을 열어 폭압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언론을 정권이 장악하고 있고, 정보유입 및 확산의 유용한 수단인 인터넷을 운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중동식으로 페이스북이나 트

위터, 유튜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북방송, 풍선날리기, 비디오, CD 등 오프라인 공간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유의 바람, 개혁의 바람이 북한에 유입되어 북한주민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60여년 넘게 수령의 군대로 사병화된 북한정권의 핵심 물리력이자 체제보위력인 북한군과 인민보위부 등이 김정일 정권에게 등을 돌릴 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실제 중동혁명이 성사된 이집트, 리비아에서는 핵심 체제유지세력인 군이 독재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탈하여 시민군을 이끌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셋째, 북한주민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위부, 당조직, 주민조직 등 주민통제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철저한 4선의 감시체제 하에서 주민폭동을 계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김정일 정권은 중동혁명에 자극을 받아, 체제보위와 정권유지를 위해 더욱 더 주민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무력화할 방법이 요망된다.

끝으로, 앞서 제시한 3가지 조건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워 보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등 경제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중동혁명의 시발이 극심한 주민생활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가중되는 경제난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봉기하는 구조를 연출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지속적인 봉기의 확산은 결국 북한정권의 주된 체제유지수단이자 공포정치 근간인 당 정치조직, 보위조직(비밀경찰), 보안조직(경찰)과 북한군을 움직여 김정일 폭압정권과 분리시킬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주민봉기’가 이루어진다면 철옹성 같은 북한 김씨집단도 카다피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



아름다운 공동체
인도네시아 한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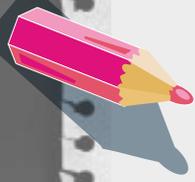
Korean Association 2011년 한인회 임원 찬조금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 (\$)
1	한인회 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2011	20,000
2	한인회 수석 부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2011	10,000
3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1	10,000
4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송창근	KMK GROUP	2011	9,980
5	한인회 부회장	김주철	PT. STARCAMTEX	2011	5,000
6	한인회 부회장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1	5,000
7	한인회 부회장	이호덕	PT. ROYAL SUMATRA	2011	5,000
8	한인회 부회장	조용우	외환은행	2011	5,000
9	한인회 부회장	최대호	PT. KIWOOM SECURITY	2011	5,000
10	한인회 부회장	황의상	PT. INWHA INDONESIA	2011	5,000
11	한인회 부회장	최상학	우리은행	2011	5,000
12	상공회의소 부회장	곽삼섭	PT. BOSAEANG JAYA	2011	3,000
13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성대	PT. SAMICK INDONESIA	2011	2,995
14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2011	3,000
15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경석	PT. DONG SUNG JAKARTA	2011	2,965
16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세호	DUMI GLOBAL	2011	3,000
17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완주	PAN BROTHERS TBK	2011	2,990
18	상공회의소 부회장	안광진	ERNST&YOUNG INDONESIA	2011	1,500
19	상공회의소 부회장	장윤수	HANSARAM SAKTI	2011	3,000
20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김육찬	PT. GARUDA TWIN JAYA	2011	2,000
21	자문 위원	김영만	KIPCO CO. LTD	2011	1,000
22	자문 위원	김우재	PT. KOINBUMI / MUGUNGHWA	2010	1,000
23	자문 위원	박헌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1	1,000
24	자문 위원	양영연	PT. BOSUNG INDONESIA	2011	1,000
25	자문 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11	1,000
26	자문 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2011	1,000
27	이 사	강주석	PT. SERIM INDONESIA	2011	1,000
28	이 사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2011	1,000
29	이 사	강희중	PT. SUNG TECHNOLOGI	2011	Rp.860만
30	이 사	구자성	일요신문	2011	1,000
31	이 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2011	1,000
32	이 사	김경국	PT. N E S	2011	1,000
33	이 사	김광현	PT. ASOKA	2011	Rp.9백만
34	이 사	김두련	PT. MIWON INDONESIA	2011	1,000
35	이 사	김문호	PT. DADA INDONESIA	2011	1,000
36	이 사	김상태	SMS GROUP	2011	1,000



서로 돕는 한인 사회 · 서로 믿는 한인 사회 · 발전 하는 한인 사회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 (\$)
37	이사	김성국	PT. PERTA SAMTAN GAS	2011	1,000
38	이사	김영도	PT. QUTY KARUNIA	2011	1,000
39	이사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1	1,000
40	이사	김원관	PT. GF INDONESIA	2011	980
41	이사	김종성	PT. BONGMAN INTERNATIONAL	10/11	2,000
42	이사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2011	Rp.1천만
43	이사	김철회	PT. BK GLOBAL LESTARI	2011	1,000
44	이사	남상달	PT. PARKLAND WORD	2011	1,000
45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2011	1,000
46	이사	류봉열	PT. HANIL INDONESIA	2011	1,000
47	이사	박성대	PT. HANJIN IND JAYA	2011	1,000
48	이사	석웅치	PT. DAYUP INDO	2011	1,000
49	이사	송판원	PT. KORYO POLIMER	2011	1,000
50	이사	안선근	UIN UNIVERSITY	2011	1,000
51	이사	안홍제	PT. KOLON INA	2011	1,000
52	이사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2011	1,000
53	이사	유주완	PT . FEEL BUY INDONESIA	2011	1,000
54	이사	윤석환	PT. SUNG SHIN IND.	2011	1,000
55	이사	이상일	PT. U I B	2011	1,000
56	이사	이석태	PT. U F U	2011	1,000
57	이사	이종억	K A L	2011	1,000
58	이사	이준하	PT. DAELIM INDONESIA	2011	1,000
59	이사	이철훈	PT. INDOBOX UTAMA JAYA	2011	1,000
60	이사	장주현	PT. INKO PRIMA UTAMA JAYA	2010	1,000
61	이사	전민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1	1,000
62	이사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2011	1,000
63	이사	조호신	PT. SONERGY	2011	1,000
64	이사	차상만	PT. HANKOOK CERAMICS	2011	1,000
65	이사	최광수	PT. BIG STAR INT'L TRADING	2011	1,000
66	이사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2011	1,000
67	이사	현정규	PT. MEKAR SAMMI JAYA	10/11	2,000
68	이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INDONESIA	2011	1,000
69			NO NAME	2011	3,000
70			NO NAME	2011	1,000
71			NO NAME	2011	1,000
TOTAL					161,410
					Rp.2,760만



함께 해요!

행사를 알리고 싶은 분은

한인뉴스편집실 haninnewsinni@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한인미술협회정기전 및 시상식

전시회 개막 및 시상식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1. 11월 10일 ~ 20일까지

장소 : Gandaria City Mall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Indonesian
Heritage
Society*

국립박물관 한국어 무료 안내
매월 1,3주 토요일, 9시 30분

11월 14일 10시 코리안섹션 정기총회 개최

회원 모집! 헤리티지는 인도네시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배우고 알리는 문화 단체입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외국인 친구도 사귀시고 문화 연구도 함께 하세요.

연락처 : 이미경 0815. 1902. 4416 / 이수진 0816. 1300. 210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제15회 열린강좌

제 목 : 한국관광의 스토리텔링 한-중-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개관(1)

일 시 : 11월 19일(토) 10:00 - 12:00

강 사 : 권종술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장)

장 소 :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연락처 : (021) 7883 9597 /0815-1901-0570

203회 문화탐방

탐방지 : 루마자와

일 시 : 11월 26일 토요일 9시 - 12시

* 9시 문화연구원으로 오세요.

인터넷접수 및 문의 박윤정 0818-821474 pyjikcs@gmail.com

경남고등학교 총무 및 연락처 변경

신임총무 : 정낙현

연락처 : 0813 8293 8557

고국에 가지거든 최고의 시설과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재인니한인회와 건강검진 협약, 한국건강검진협회 <홈페이지 : www.kahp.or.kr>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021 527 2612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69 124
버카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매단한인회	061 453 8669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뎀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빨렘방한인회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교민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끌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120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0 5979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65 3077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84 6674
주님의교회	831 3843
찌까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침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민
년 길도 가까워 집니다

피부에도 몇 번의 나발은 어울립니다.
고재우 나리 겨울이요 편평한 스승이됩니다.
선본 선본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해 찾아볼 것입니다.
- 빈호사 리소장 예감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hunting) F 521-2478 doowang@cbn.net.id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 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있는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6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골프투어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존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새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짜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아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짜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짜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짜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팰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뽕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뽕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어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뽕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가루다오리엔트홀리데이	7278	0856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솔로몬투어	0813	1934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뽀)	0778	462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디젤 발전기



- CUMMINS, DOOSAN, PERKINS, VOLVO 등
- Open Type, 방음형, 트레일러형 등
- Synchronizing Panel, AMF / ATS
- Dual Fuel System Gas 70% and Solar 30%

PT. JUBILEE POWERGEN ENVITEC
(위지아 센터 내)
Tel (021)725 1551 Hp 0818 143 646
E-mail jpenvitec@yahoo.com

생활정보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KEMBAR REJEKI	527	2245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동서증권	526	1326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건설링

글로벌건설링	7280	0524
누비라건설링(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건설링	520	7153
새천년건설링	5290	0040
우리건설링	7918	4239
건설링 21	799	6182
퓨릭건설링	5596	3213
한생건설링	5290	0670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윌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집	1757	5525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279	1020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

(회장 한상재)	0811	188 612
미술협회(인치혁)	0813	1514 9978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김영희)	0815	181 3102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차문화원 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한상재)	(0811)	188 612)
문화연구원(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장방식)	0811	902 003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엄종한)	0811	177 503

●항공

대한항공(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두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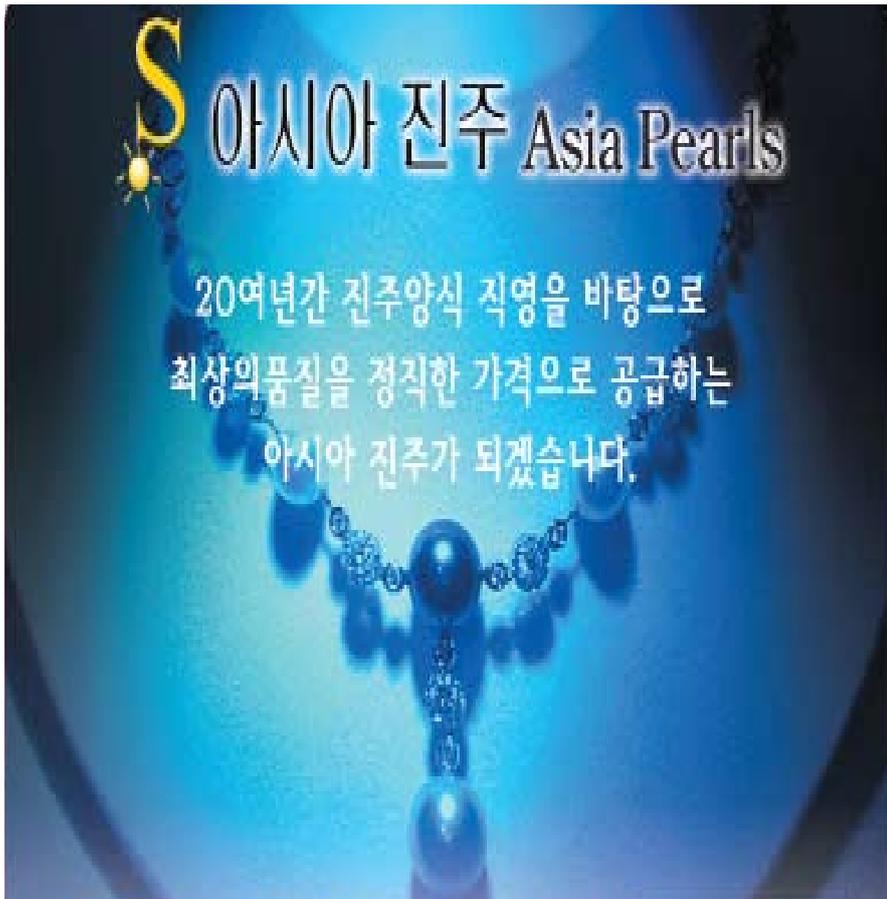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지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21 1616 3300
반동한인부동산	0858 6011 0777
반동컴퓨터 A/S	0821 1616 3300

PROJECT DEVELOPMENT
CONSTRUCTION CONSULTANTS



건축 개발
건축 설계, 감리
건설 기술 용역

PT. Makmur Sistimindo Perkasa
Grand Wijaya Center Blok G-12A/B
Jl. Wijaya II, Kebayoran Baru
Jakarta

Phone : (021) 721 0356 (Hunting)
HP : 0816 927 134
Fax : (021) 739 8403
Email : mspform@yahoo.com
Website : www.msperc.com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HYUNDAI Truck

Yang Memberikan Keuntungan Ini Bagi Anda!

- Untung!** Karena irit bahan bakar
- Untung!** Karena tak pernah rusak
- Untung!** Karena dapat perawatan di manapun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TOUS les JOURS
AUTHENTIC BAKERY

GRAND OPEN

5F, Senayan City Shopping Mall / GF, Mal Kelapa Gading 1

17 December, 2011

Using high quality natural ingredients,
we proudly offer fresh baked bread every day.
We are ceaselessly doing our best to be a better
bakery for your family's health and happiness.

USA. Korea. China. Pilippines. Vietnam.

www.tj.co.kr